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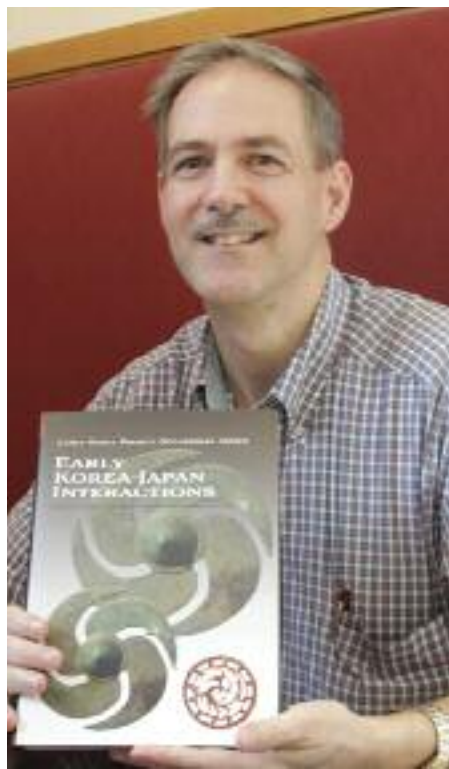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임나일본부' 설 고고학으로 배격 최초 영문서적 출간



고대한국사연구(Early Korea Project)의 마지막 영문서적을 손에 든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대 교수

한국고대사연구 마지막 책, <한일고대상호교류> 유물통해 '임나일본부' 설 고고학적 철저히 반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고고학적 관점에서 고대 한일관계를 새롭게 해석, '임나일본부' 설 등을 학문적으로 반증한 하버드대 출판 영문서적이 7월 출간됐다.

한국 국회에 의해 중단된 하버드대 한국고대사연구실(EKP)의 마지막 결과물인 영문서적 <Early Korea-Japan Interactions; 한일고대 상호교류>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고대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문서적으로 한일관계를 과거 한일 역사학자들의 적대적인 관점 대신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하버드대 한국고대사연구를 이끌었던 마크 바잉턴 교수와 영남대 마틴 베일 교수 그리고 게니치 사사키 메이지대 교수의 공동 편집으로 발간된 이 책은 서문에서 “그동안 발견된 한일 고대관계 영문 서적 및 글들이 임나일본부와 일본

지배층이 한반도에서 유래했다는 강상과부설에 집중해있었다” 고 말하고 이 같은 주장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철저히 반증했다.

16일 하버드한국학연구소 빌딩 카페에서 만난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대 교수는 “서양 학자들이 일부 한일관계를 다루기는 했지만 고고학에 근거해서 고대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처음이다” 라고 밝혔다. 특히 바잉턴 교수는 “지난 20-30년간 발견된 유물에 기초해서 고대 한일관계를 볼 때 두 나라는 더 많은 기간 동안 우호적으로 교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 밝혔다.

바잉턴 교수는 특히 “모든 책의 내용은 한반도에 살던 사람과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국 또는 일본 등 전체적인 단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며 ▶▶2면으로 계속



지난 2013년 룸메이트 사기에 사용되었던 가짜 체크

보스톤 초보 노린 룸메이트 사기 여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초보 미국생활자를 노린 룸메이트 및 서블렛 사기가 그동안 몇차례의 보도와 경고 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사기단은 광고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위조수표를 보낸 후 일부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방법의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상대방 추심 후 체크가 위조수표로 판명되는 경우 은행은 다시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한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최저가**
비수기 **한국행항공권**

미국노출여행코스 \$860 부터
프리미엄미국노출여행코스 \$1,330 부터

· 마감일박 ·
엘로스톤 & 그랜드티드 4일
출발 단 4번의 출발행정만 남았습니디.
8월 18일, 8월 25일, 9월 8일, 9월 11일 출발
1인 \$520~

IAE TRAVEL 617-424-8956
월요일-금요일 12:00PM - 9:00PM EST Toll Free 866-619-4223 info@iae-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이일린 박
주최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임나일본부' 고고학적으로 배격 최초 영문서적 나왔다

▶▶1면에 이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임나일본부' 설에 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임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했다"며 "특히 고대유물을 근거했으며 해석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바잉턴 교수는 "이 책의 저자들은 모든 것에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다. 유물은 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책 서문에서 "일본고고학자들은 모두가 도자기기술, 승마, 마구, 철기 농기구 등 기술혁명이 한국에서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본 병사들이 데려온 한국의 장인에 의해 기술혁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을 보면 '임나일본부'를 다루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학자들과 일본학자 접근 방법에 상당부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동해의 표기도 한국학자의 장에서는 "동해(일본해)"로 표기하고 일본학자의 장에서는 "

일본해(동해)"로 표기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서문을 제외하고 7장으로 꾸며져 있는 이 책은 3명의 한국 고고학자, 그리고 4명의 일본 고고학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잉턴 교수는 "저자들은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 저자,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 일본저자들로 구성됐다. 이 책이 나온 것이 너무 기쁘다.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사역사학자들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임나일본부 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일본서기에 근거한) 임나일본부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은 일본에서는 2달전부터 100권이 넘게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됐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약 20여권만 배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하버드 한국학연구소에 500여권이 지난 주 전달됐다. 한국의 지원이 끊긴 관계로 하버드 및 유펜(U-Penn)의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번 책이 발간됐다.

editor@bostonkorea.com

바잉턴 전 하버드 교수, "한국 방문 신변 위협 느낀다"

한국고대사 대신 중국의 연, 진, 한 발달사 연구 EKP 다시 시작해도 자신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고구려와 수당의 관계, 고조선, 백제, 신라, 발해에 관한 영문 역사서적이 차례로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중간에 한국 국회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고대한국사연구실(Early Korea Project)의 마지막 영문서적을 손에 든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바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도종환장관이 문화부에 임명됐고 국회의 청문회과정에서 통과된 것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몇 년간 아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며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고대사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EKP가 부활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각종 강연이나 학회 등에 참여하면 "나는 한국의 유사역사학자

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집중한다. 나뿐만 아니라 몇 명의 학자들이 이 (한국의) 유사역사학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한 학자는 유사역사학자 노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잉턴 전 교수는 올해 3월 16일 BU에서 열린 포럼에서 "문화적 전용과 무기화된 유사역사학: 한국 상고사의 어두운 면"이란 제목으로 유사역사학을 경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그가 펼친 유사역사학자들의 고대 한반도 지도를 보고 40여명의 강연 참가자들은 모두 실소를 머금기도 했다.

그가 이 같은 강연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국내) 유사학자들이 각종 활동을 통해 서양 학자들을 설득하려는 다음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바잉턴 전 교수는 "한국 정부의 유사학자들에게 지지하는 입장이 그들의 행동에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대 교수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주류 사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연구에는 물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사역사학자들이 거대 고대사란 감성적 무기로 한국인들의 만족감을 키우는 동안 미국 등 해외 역사학자들에게 가하는 한국의 이미지 손상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다. 현재는 일부 서양학자중 한국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고대사를 가르치기 꺼려한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주어지는 기금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바잉턴 전 교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수는 “한국고대사연구 실만 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좀 작은 규모의 출판물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반대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동북아 역사지도도 중단되는 것도 서양 학자들에게 알려졌다” 고 전했다.

한국 학자들과 교류도 끊겼다. 과거 35년동안 1년에 몇 차례씩 방문했던 한국을 4년 넘게 가지 못하고 있다.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이덕일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신변의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덕일 한가람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9월 칼럼에서 “마크 바잉턴은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버드대에 갖다 바친 대한민국 국고 10억 원 내에서 임시 채용한 연구교수나 계약직교수다”. “하버드는 돈만 받았지 정작 영문으로 발간된 책에는 하버드 이름이 없다. 출판사 이름도 없는데 찾아보니 인쇄지는 국내이고, 배포처는 하와이대학이다.” 라는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는 극히 개인적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가 쓴 칼럼의 몇 문장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쓴 것인지 가늠할 길 없다.

바잉턴 전 교수는 “하버드 동아시아언어문화부에서 임시 교수로서 고대사 및 고고학을 가르쳤으나 고대사연구 실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했다” 고 밝혔다. 바잉턴 교수가 “하버드대 종신교수” 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그는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다. EKP발간 서적은 모두 하버드대학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잘못된 주장

을 하고 있다. 간단한 두가지 사실만을 점검해보면 그의 역사적 주장이 책임있고 정확한 연구와 철저한 고증, 사실을 기반한 것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바잉턴 전 교수는 현재 중국 동북부 청둥기, 철기시대 유물과 문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온 학자들과 연, 진, 한의 발달사를 연구하고 있다. 유사역사학자들로 인해 더 많은 외국 한국학 연구자들이 향후 한국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바잉턴 전 교수는 “사회는 유사 역사학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과학과 이성적인 사고에 근거 스스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하버드대학 한국학 연구소는 7월 5일자로 성명을 통해 하버드 한국학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의 학문적 연구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특히 한국학 연구소는 “한국고대사연구실은 학자로서 최고의 진실성과 학문 연구에 대한 헌신으로 한국고고학 연구분야에 기여했다” 고 그를 서술했다.

한국학연구소는 또한 바잉턴 전 교수가 EKP 소장을 맡았으며 강의, 워크샵, 그리고 출판과 강의 연구 등을 통해 수많은 활동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EKP는 시작부터 한국연구학회, 한국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연구패어뱅크센터, 에드윈 오 라이쇼어 일본학연구소, 하버드 아시아센터, 하버드엔칭연구소,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연구협회 극동아시아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았다고 평했다.

editor@bostonkorea.com

이하윤 학생 나의꿈 말하기 미주 대상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이하윤 학생(16)이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나의꿈말하기대회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대표로 출전한 이하윤 학생은 <글로벌리더가 되고자 하는 저의 이유와 목표>란 제목으로 자신의 꿈을 또박또박 진솔하게 표현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하윤 학생은 “누군가가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으면 잠깐이지만 고민하게 된다.” 며 이중문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배경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했으며 발표 내용도 간결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아무진 꿈을 밝혔다.

그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변화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끝맺음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이하윤 학생은 4월 7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열렸던 뉴잉글랜드지역 나의꿈말하기대회 예선에 단독으로 출전해 비교적 쉽게 본선에 진출했었다.

하윤 학생은 수상소감으로 “정말 기대하지 못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발표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뻐다” 고 밝혔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이하윤 학생(16)이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나의꿈말하기대회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윤 학생은 4월 예선보다 훨씬 더 나은 발표실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는지 묻자 “시카고 여행중에 (뉴잉글랜드한국학교)선생님들 앞에서 연습했으며 선생님들이 단순히 암송하듯 말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 고 밝혔다.

지난해 친구가 나의꿈말하기대회에 출전한 것을 보고 자신도 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하윤 학생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선 2주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다져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2018. 8. 1부터 학원 장소가 이전됩니다.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주소: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KOREA K F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년도 국제교류지원사업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국제교류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교류지원사업은 한국의 국제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미국내 예술인 활용 문화행사, 한식 글로벌 확산사업, 한국영화 상영지원, 코리아 코너, 해외유력인사 초청, 외교관한국언어문화 연수 등의 사업이다.

위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는 보스톤 총영사관을 통해 10월 31일(한국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한국학도서관 지원, 한국연구자료지원, 한국연구전자자료 지원,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한국학 객원교수 파, 한국(어)학 현지교원 고용 지원,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지

원 등의 사업은 올해 9월 11일(한국시간)까지 신청해야 한다.

해외정책연구 지원, 해외단체 한국 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외박물관 한국 전시 지원, 출판 지원 등은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인은 방한연구 펠로십, 한국어 펠로십,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등을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apply.kf.or.kr>)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발급된 ID로 사업신청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양식을 기입한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KF 대외협력부 (bkwoo@kf.or.kr) 또는 주보스톤총영사관 고성민 영사 (smko06@mofa.go.kr)에게 문의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초보 노린 룸메이트 사기 여전

▶▶ 1면에 이어서

인들은 이 같은 고전적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지만 룸메이트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처지이거나 수표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초보 미국생활자인 경우 이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초보 유학생 A씨는 21일 이메일을 통해 보스톤코리아닷컴에 광고를 올렸다가 룸메이트 사기를 당했다며 제보했다. 그는 “돈을 돌려받는 것은 포기했지만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카카오톡 아이디와 이메일 정보 등을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기를 행하는 사기범은 인터넷의 다크넷(Dark net)을 통해 아이디 등을 확보한 상태라 사실상 거의 추적이 불가능하며 한번 사용한 아이디 등은 반복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정보로 사기범을 구분하기는 힘들다. 정확한 금액의 지불금인지 확인하고 돈을 송금할 때도 반드시 추심 기간을 거친 후 송금해야 한다.

특히 이 사기범은 미국내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집중적으로 초보 유학생 등을 노리며

사기행각을 수년째 벌이고 있다.

A씨는 “당하고 나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행동이었네요. 생각을 좀 하고 했어야 했는데. 이런 고전수법에 당한 저도 참 바보같아요... 저같이 처음 오신분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분 그리고 미국은행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기는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빚들을 치고 들어 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특히 9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제 초보 유학생들이 점차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사용한 이메일은 shoonkim-mie@gmail.com, 카톡아이디는 amkim32였다. 이들은 아직도 사용 가능한 계정이다. 그러나 이를 추적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원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아외식재료의 많은 단점을 위해
홍삼정를 밖에서도 간편하게!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엔 기를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1포에 홍삼 농축액 3,000mg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정홍삼과 홍삼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일품하게

6월 스페셜 프로모션

3+1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선물제품 소진시 프로모션이 종료됩니다.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마틴 월시 보스턴시장이 지난 5월 5일 덴고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후보의 해버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미국내 두번째 한인 연방하원 MA에서

덴고 두번째 한인사회 선거자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사상 두번째 한인 연방하원의원을 매사추세츠에서 선출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힘을 모은다. 대니얼 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선거자금모금을 위한 두번째 한인사회 기금모금모임이 앤도버 소재 남궁연 전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장 자택에서 8월 11일 개최된다.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과 뉴잉글랜드한인시민협회가 공동으로 개

최하는 이번 선거기금모금 만찬은 제 3선거지역구에 위치한 북부보스턴교회 등 3-4개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남궁 전위원장은 한미노인회, 국제선교회, 옥타경제인협회, 강원도민회, 충청향우회 등도 함께 하며 안남열 전 태권도협회장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금 만찬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남궁 전위원장의 자택 (101 Lovejoy Rd, Andover)에서 개최된다.

후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개인 체크를 Committee to Elect Dan Koh로 써서 남궁연씨 자택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도 된다.

덴고 후보는 최근 2차 TV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해버힐 파이오네티니 시장의 지지선언을 받았다. 지난주에는 피치버그 샘 새쿼시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250명의 노조원이 있는 보일러제조 로컬 29 노조와 400여명의 노조원이 있는 플러머 로컬 4노조가 지지선언을 했다. 이로써 23개 노조가 덴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2018 여호와의 증인 미국 동부 한국어 지역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여호와의 증인 연례 대회가 8월 3일에 시작한다. 3일간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용기를 내십시오!”이며 미국 동부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약 8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회는 180개 나라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하나이며 대회 프로그램은 연설, 음성 드라마, 인터뷰, 짧은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요나-용기와 자비에 대한 교훈」이라는 영화가 상영된다. 오전 회기와 오후 회기 모두 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악 영상으로 시작된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은 이 대회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실용적인 성경 조언과 용기 얻기를 당부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웹사이트 www.jw.org/ko에서 받을 수 있다.

대회장소: Assembly Hall of Jehovah's Witnesses
44-17 Greenpoint Avenue, Sunnyside, NY 11104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캐논 마운틴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캐논 마운틴/프랭코니오 노치 지역으로 8월 4일 토요일 정기산행을 떠난다.

산행 거리는 왕복 5.8마일이며 산행 시간은 약 4.5시간이다. 난이도는 3.5로 보통수준이지만 바위 및 부분적으로 가파른 곳이 있다.

산행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착용, 방

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와 간편 중식 등이다. 회비는 20불이며 뉴햄프셔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서 오전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김혁신)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뉴욕 센트럴파크서 코리아 가요제 열린다

8월 11일 서머스테이지 2년연속 한국특집 공연
센트럴파크 럼지 플레이필드 무료 스탠딩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과 한국 등에서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음악인들을 초청, 힙합, 랩, 소울, R&B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코리아 가요제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8월 11일 토요일 개최된다.

뉴욕시공원재단이 주최하는 '서머스테이지'는 1987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뉴욕 최대의 야외공연 페스티벌이다. 매년 여름,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수만 명의 뉴요커를 모으는 대표적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뉴욕한국문화원은 뉴욕시공원재단(City Parks Foundation),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공동주최로 센트럴파크 내 야외 메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필드(Rumsey Playfield)에서 <썸머스테이지: 코리아 가요제>를 무료로 개최

한다.

이번 <코리아 가요제>는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 뮤지션들인 '케로원', '덤파운데드', 그리고 헤드라이너 아티스트인 '토키몬스타'의 무대로 채워질 예정이다.

케로원(Kero One)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래퍼, DJ이자 프로듀서다.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등 한국의 유명 뮤지션들과 활발하게 협업하며 한국 팬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졌다.

두 번째 뮤지션은 로스앤젤레스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래퍼 덤파운데드(Dumbfoundead)이다. 에픽하이 6집에 참여한 이후, 박재범, 도끼, 사이먼 도미닉, 타이거 JK 등 다양한 뮤지션들과의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코리아 가요제>의 마지막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올해의 헤드라이너는 빌보드, BBC, 롤링스톤즈, LA위클리, 스피ن 등 다수 매체에서 최고의 여성 DJ로 선정된 바 있는 토키몬스타(TOKIMONSTA)이다.

<코리아 가요제> 공연을 기획한 뉴욕한국문화원의 한호 공연 디렉터는 "이번 공연은 토요일 저녁에 센트럴파크에서 개최되니, 많은 분들이 여유를 갖고 오셔서 누구나 신나게 여름밤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큰 관심과 호응을 부탁했다.

<썸머스테이지: 코리아 가요제>는 뉴욕 맨해튼 소재 센트럴파크 내 럼지 플레이필드(72가와 5 애비뉴 공원 입구를 따라 도보 3분 이내)에서 8월 11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장 입장은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썸머스테이지 홈페이지(<https://cityparksfoundation.org/events/korea-gayoj-e-tokimonsta-kero-one>)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5회 H마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Pre-K의 어린이 바나바스 류(Barnabas Ryu) 학생이 대상을 차지해 \$1,000의 장학금 및 특별트로피, 상장을 수여 받았다

H마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상에 1천불 수여

어린이그림그리대 대회 시상식 뉴저지본사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5회 H마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Pre-K의 어린이 바나바스 류(Barnabas Ryu) 학생이 대상을 차지해 \$1,000의 장학금 및 특별트로피, 상장을 수여 받았다.

시상식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H마트 리치필드점-문화센터에서 주최측 관계자, 어린이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그룹별 1명씩 선정된 1등은 유치부 1등 Stella Zamfotis (Kindergarten), 초등부 1등 Juniper Wang (3rd Grade), 중등부 1등 Ruier Wang (7th Grade)이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300 H마트 상품권 및 특별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되었다. 이외에도 2등, 3등, 장려상 등의 수상자들에게 총 \$3,60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이 전달되었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NY, NJ, PA, MA매장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와 H마트 웹사이트(<http://nj.hmart.com/our-story/nynj-winners-of-2018-art-cont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마트는 "수상을 하게 된 모든 수상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H마트 어린이 그림대회가 뉴욕, 뉴저지 지역의 대표 가족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개최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사은품이 무료로 증정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짜라시 토크 19



이거 실화냐?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주)

“해당국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VPN으로 우회

기자 1=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축구 동영상 등을 보려 할 때 나오는 문구가 바로 “해당국가에서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입니다. 월드컵 관련 등 여러 스포츠 경기 중계일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VPN (Virtual private network)입니다. 한국어로 가상사설망으로 번역하는데 굳이 번역해도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VPN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기자 2= VPN은 개인의 아이피(IP)를 해당 VPN업체의 가상 아이피를 쓰기 때문에 개인의 인터넷 보안을 확보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이피가 캐나다 또는 한국 등으로 표시되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이죠. 최근 사이버 시큐리티 백신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로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아이피 등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유료 VPN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자 1= 맞습니다. VPN을 이용하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가상아이피가 주어지며 한국 아이피를 선택하면 제가 마치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해줍니다. 따라서 다음이나 네이버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과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공격,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 북한의 노동신문을 자주 들어가 보곤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제 컴퓨터 아이피를 추적해서 노동신문 접속을 차단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그리고 기자들의 집 아이피까지 차단 당했는데 이를 해결해 접속할 수 있는 것이 VPN이기도 합니다.

기자 3= VPN의 쓸모가 많군요. 일단 자신의 기록이 남지 않아 인터넷 보안에 좋고, 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말입니다.

기자 1=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는 VPN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TOR 브라우저와 VPN 동시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철저 보안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은 단이 아닌 품

기자 1= 지난주 팔굽혀펴기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강태웅 씨 기사가 게재된 이후 18세 이하의 4단 승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기자 2= 국가원의 단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보니 18세 이하의 단증을 주지 않는 게 맞습니



토가스 농장(Tougas Farm)

다. 다만 품을 주고 이를 추후 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3= 그렇다면 11세 4단을 획득했다는 것 보다는 4품을 획득했다는 것이 정확하겠군요.

기자 1=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강태웅씨에게 확인했더니 가지고 있는 증서를 재확인한 결과 품이 맞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표적 농장 토가스 가격정책 변경

기자 1= 지난주 페이스북에 토가스(Tougas Farm) 마지막 체리피킹 기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안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기자 2= 지난주 하니팟(Honey Pot) 농장으로 블루베리 피킹을 다녀왔습니다. 블루베리 피킹이 처음 시작된 탓인지 블루베리 알이 정말 굵았고 그동안 불별 더위로 인해 당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니팟은 비교적 사람도 많지 않고 붐비지 않아 더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토가스를 가지 않는 이유는 최근 바뀐 가격정책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아시안국가 사람들이 대폭 늘면서 봉지에 도장을 찍고 심지어는 무게까지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봉투를 다음날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안을 볼 때 굵지 않는 시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가스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기자 3= 그곳뿐만 아닙니다. 특히 조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윈거시(Wingaersheek) 해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5불 라이선스를 구입하더라도 그리 많은 조개를 캐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시안들은 바구니에 삼까지 들고 와 캐어서 붓고 또 캐고 하는데 정말 저절로 눈살이 찌뿌려 집니다.

기자 2= 참 윈거시 해변의 날파리는 정말 지독합니다. 때론 청바지를 뚫고 물기도 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부터 해질녘에 심하니 그 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를 캐러 이곳을 찾는다면 썰물 때를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협찬사 : 루이 루이

Louie Louie

louiloui.com

617.208.8133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올여름 꼭 가봐야할 보스톤 인근의 해변가 8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무더운 여름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인근에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보스톤 인근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깝고 멋진 바닷가를 마미포핀스(mommypoppins.com)에서 추려서 소개했다. 모두 보스톤에서 한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들이다.

카슨 비치(Carson Beach)—사우스 보스톤(South Boston)

도시를 떠나지 않고 해변가를 방문하고 싶다면 사우스 보스톤의 카슨 비치를 추천한다. 수영과 비치발리볼, 선풍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해변은 최근 샤워시설을 재정비했다. 무료 주차공간이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레드라인의 JFK/UMass역에서 내리면 된다.

165 Day Blvd., South Boston, MA 02125

컨스티튜션 비치(Constitution Beach)—이스트 보스톤 East Boston

로건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보러 가는 곳으로 알려진 해변이다. 라이프가드와 샤워시설, 피크닉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에게 인기가 있다. 인근에 놀이터와 풀밭, 농구코트 또한 마련되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블루라인의 오리엔트 하이츠 역에서 내리면 된다.

799 Bennington St., East Boston, MA 02128

크레인 비치(Crane Beach)—입스위치(Ipswich)

노스쇼어에 위치한 크레인 비치는 아름다

운 경치와 편의시설로 보스톤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해변 중의 하나이다. 부드러운 모래와 파도, 대형 주차장 뿐만 아니라 최근 지어진 화장실과 탈의시설도 매력적인 요소이다. 점심을 싸오는 것을 깜박 했다면 스낵바를 이용하면 된다.

310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난터켓 비치(Nantasket Beach)—헐(Hull)
19세기때 부터 여름해변으로 각광받아온 난터켓 비치는 수영, 모래찜질, 일광욕 등을 즐기 좋은 멋진 해변 외에도 1.5마일 길이의 산책로가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 제격이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할 파라곤 회전목마와 여름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 또한 마련되어 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Route 3A, Hull, MA 02045

플럼 아일랜드(Plum Island)—뉴버리(Newbury)

노스쇼어에 위치한 이 섬은 가족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수 마일에 달하는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다. 파커 리버 야생동물 보호소(Parker River Wildlife Sanctuary)에 서식하는 800여종의 새와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샌디 포인트 주립공원에 방문하여 썰물 때 생기는 물웅덩이에서 놀 수도 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뉴버리포트에 들려 식사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추천한다.

Northern Boulevard, Newbury, MA 01951

싱잉 비치(Singing Beach)—맨체스터 바이 더시(Manchester-by-the-Sea)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모래사장 중 하나로 걸을 때 모래가 만드는 빼격 거리는 소리



난터켓 비치(Nantasket Beach)—헐(Hull)

때문에 노래하는 해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주차가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커뮤니티일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반 마일 길이의 해변에는 바위와 섬이 어우러진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119 Beach St., Manchester-by-the-Sea, MA

윙거시크 비치(Wingaersheek Beach)—글로스터(Gloucester)

입스위치 베이와 애니스quam 등대(Annisquam Lighthouse)의 멋진 전망이 아름다운 이 해변가는 썰물 때에 나타나는 모래톱으로 유명하다. 소라계를 포함한 다양한 바다

생물을 탐험하려면 미리 조수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Atlantic Street, Gloucester, MA 01930

올라스턴 비치(Wollaston Beach)—퀸시(Quincy)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의 전망이 보이는 2.5 마일 길이의 모래사장으로 해변의 한쪽 끝에 놀이공간, 전망대, 피크닉 테이블이 있다. 화장실과 무료주차장 마련되어 있고, 가드가 지키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길 건너편에는 두개의 튀김 조개식당이 위치해 있다.

Quincy Shore Drive, Quincy, MA 02170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24.99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문건 곳곳 재판개입 정황에도 "아니다" "모른다"...조사 한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양승태 사법부의 부적절한 '재판개입' 정황이 곳곳에 포착됐지만 특별조사단은 서로 엇갈리는 당사자 진술 탓에 사법행정권 남용의 구체적 경위나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사안인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강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일선 법관의 재산내역까지 캐내고, 특정 연구회를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담겼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주요 사안마다 의혹 확산을 막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진술로 일관했다.

의혹 문건의 작성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윗선'을 묻는 조사단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보고된 문건이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단은 결국 문건 속에 명시된 사법행정권 남용을 문제 삼는 데서 조사를 끝내야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쏠려있던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강제퇴직처분 불복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와 접촉해 선고 결과를 미리 파악하려 했다.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청정국립 법원 공지 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출 (본래 기조실질 법원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할 수 있음) ② 남북개입 커뮤니티 관리 예정 (일반법원을 피해 법원) ③ 커뮤니티 게시물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 '연사회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확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구함'
4월 후반	① 새로운 대한적 연구회(ex. 연세대인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발족·선설 → 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② 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연사로 소모임이 존재 할것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명함 있는 전체 법관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연사회의 차질스러운 소모임 유도

'(150915)통진당지방법의원인용과장분 석(문00)수정(이00)' 문건에는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됐음'이라며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사법지원총괄심의관-연수원 동기)'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재판장인 방도 부장판사와 동기인 심모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통해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아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시자와 행위자, 재판장의 진술은 각각 다르다. 문건을 최종 수정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판결에 '사법부에 판단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심 총괄심의관을 통해 방 부장판사에게 얘기를 해 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내용 등을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심 총괄심의관은 "2015년 9월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 전 방 부장판사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방 부장판사는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심 총괄심의관으로부터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

또 다른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난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151006)원세훈사건 환송후당심심리방향' 문건은 재판부와 접촉해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을 작성한 보고서다. 문건은 재판장이 이전 재판에서 쟁점화되지 않은 공도관계 등에 대해 재심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기)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150210)원세훈전국정원장판결선고관련각계동향' 문건에는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고, 조사단은 "거짓표현에 불과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결론 내렸다.

dosool@news1.kr

줄줄이 영장기각·자료거부 법원 사법농단수사 암초 만난 검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공언에도 대법원이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자에 대한 잇단 영장기각, 디가우징(강한 자기방어를 통한 데이터 영구삭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실패로 기초자료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전날(24일)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보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시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검찰 발표에 법원은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검찰과 법원 간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6월15일 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 이후 검찰은 6월19일과 7월5일 법원에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이에 6월26일과 7월24일 2번에 걸쳐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출한 해당 자료는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이거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법원 판결문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관련 자료를 8000개 갖고 있는데 법원은 그 중 100개를 준 것"이라며 "(확보한 것 외의) 다른 자료도 있긴 한데 판결문, 코트넷(법원내부전산망) 게시판 등으로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들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 달 동안 자료를 요청했고 줄지 말지 확실히 답을 달라고 하니 어제 법원에서 '못 준다'는 답이 온 것"이라며 "'최종 통보'란 (네 글자) 말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낸 입장을 보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입장이 바뀌거나, 제출을 재검토하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법원은 "아니다"며 재검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통보'란 말을 쓰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자료를 못 주는 경우엔 못 주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그 사유를 전날 답하긴 했지만, 이 답변의 이름이 '최종 통보'는 아니었다는 해명인 셈이다.

smith@news1.kr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T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캠브리지, 전동 스쿠터 렌탈 비즈니스 불법

스마트폰 앱 이용한 전동 스쿠터 깜짝 등장 버드 라이즈 스쿠터 사전 허가 받지 않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한 전동 스쿠터에 캠브리지 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주부터 캠브리지와 서머빌에서 보이기 시작한 버드 라이즈(Bird Rides Inc.)의 전동 스쿠터 렌탈 비즈니스는 시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캠브리지 시의 루이스드파스케일 행정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드 라이즈의 중앙 정책 부서에 보낸 서한에서 “캠브리지에서 버드 라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밝혔다.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고 운전면허를 스캔한 후 몇 가지 약정에 동의하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 앱을 통해 스쿠터에 있는 쿼알 코드를 읽으면 스쿠터의 시동을 걸 수 있고 버드 라이즈의 스쿠터는 최대 시속 15 마일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캠브리지 시가 보낸 서한에는 “

귀사는 이런 종류의 스쿠터 렌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전에 우리 시에 허가나 권리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캠브리지 시는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가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도시 내에서 도로를 이용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캠브리지 시에 따르면 현재 상황

에서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가 캠브리지의 도로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는 지난 20일에 갑자기 등장했다. 캠브리지의 정부 관계자도 주민들도 전혀 몰랐던 일이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다”며 “만약 버드 라이즈가 보스톤에 스쿠터를 내려 놓았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스쿠터를 수거할 것이고 버드 라이즈의 스쿠터는 쓰레기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는 지난 20일 캠브리지와 서머빌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How to speak Boston...



보스톤 억양 미국에서 가장 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 보스톤의 영어 발음이 미국에서 가장 강한 억양(accent)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ougov.com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지역의 억양이 가장 센지, 그리고 어떤 억양이 가장 듣기 좋은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였다. 1,21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의 23%가 보스톤의 억양이 가장 강하다고 답했다.

보스톤에 이어 남부 해안 지역(16%)과 뉴욕(13%)의 억양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보스톤의 억양이 가장 강하다고 답했지만, 가장 듣기 좋은 억양은 남부 해안 지역의 억양이었다. 텍사스가 두 번째로 듣기 좋은 억양으로 꼽혔고 보스톤은 3위를 차지했다.

외국인들의 발음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20%가 영국식 억양이 가장 듣기 좋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프랑스식 억양(13%)과 오스트리아 억양(12%)이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가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MA 법무부 전자담배 '줄' 조사 시작

미성년자 대상 의도적 마케팅 여부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전자담배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젊은 층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자 담배 제품 중 하나인 줄(Juul)이 그 대상이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뉴스 컨퍼런스에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줄 랩스(Juul Labs)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혔다. 힐리 법무장관은 줄 랩스가 미성년자들의 전자 담배 사용량을 추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과 마케팅 방법이 의도적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힐리 법무장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법무부는 이미 줄 랩스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힐리 법무장관은 “십대들의 흡연 비율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줄을 비롯한 전자담배는 학교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자 담배 제품이 니코틴 중독의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며 “우리는 줄과 함께 온라인 상점들을 조사해 전자 담배처럼 중독성이 높은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힐리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온 두 곳의 온라인 전자 담배 판매점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매쓰 제네럴 হাসপিট에서 근무

하며 법무부에 협력하고 있는 조나단 원키오프 소아과 의사는 “학교 교실에서나 복도에서도 줄을 사용한다고 환자들이 말한다. 하루 종일 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전자 담배 시장은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USB 메모리처럼 생긴 친숙한 모양에 컴퓨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다양한 향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줄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매사추세츠 법무부에 앞서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4월에 줄 랩스에 서한을 보내 줄의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 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jsi@bostonkorea.com



어린이 인기간식 '골드피시' 리콜

일부 제품 살모넬라 위험...아직 피해보고는 없어

(애틀랜타=조선일보) 박연진 기자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골드피시(GoldFish)' 일부 제품이 리콜됐다.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페퍼리지 팜 측은 골드피쉬 일부 제품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해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퍼리지 팜 측은 해당 골드피쉬 제품에 사용된 시즈닝과 우더를 만드는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직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리콜이 결정된 골드피시 제품은 'Flavor Blasted Xtra Cheddar', 'Flavor Blasted Sour Cream & Onion', 'Goldfish Baked with Whole Grain Xtra Cheddar', 'Goldfish Mix Xtra Cheddar + Pretzel'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각 폐기 처분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들고 가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이 요청되고 있다. 페

퍼리지 팜의 대표 스낵인 골드피시는 지난해 미국에서 5억23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낵 부문 인기 2위 제품이다. 리콜 문의 =PepperidgeFarm.com/GoldfishUpdate.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연방 질병통제센터(CDC)는 조지아주 포함 전국 26개주에서 최소 90명 이상이 칠면조 고기와 관련된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감염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감염자가 발생한 주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캔터키,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이다. 90명의 환자들 중에서 40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트럼프 "성추문 막으려면 현금 줘" 육성파일 공개 파문

CNN 보도...변호사와 대화중 "현금으로 줘" 발언
트럼프 측 "논의한 건 맞지만 직접 돈 주진 않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성추문 관련 대응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음과 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성추문 대응과 입막음용 합의금 지급 의혹에 대해 '당시 변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NN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2개월 전인 지난 2016년 9월 자신과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 간의 성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논의했다며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도했다.

맥두걸은 2006년부터 약 10개월간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해온 인물로서 2016년 8월 15만달러(약 1억6900만원)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 관계에 대한 독점 보도권을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기업 아메리칸 미디어(AMI)에 팔았다.

그러나 AMI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패커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데다 AMI는 보도권 매입 뒤에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아 맥두걸에게 지급된 돈이 사실상 입막음조였던 게 아니냐는 관

측이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CNN이 코언 측으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엔 코언이 '데이비드(패커)로부터 (맥두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넘겨받기 위해 회사를 차릴 필요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파일엔 "무슨 자금 말이나(What financing?)"고 되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는 코언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으로 지불(payment with cash)"이란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하자, 코언이 "아니, 아니(No, no)"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연이어 등장한다.

이에 대해 CNN은 당시 코언이 '유명회사를 설립해 AMI로부터 맥두걸 관련 보도권을 매입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NN은 녹음상태가 불량해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불" 발언이 '돈을 주고 보도권을 되사라는 뜻인지, 그런 돈은 줄 수 없다는 뜻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녹음된 내용이 맥두걸 관련 보도권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지불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파일엔) 범죄행위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어떤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언의 변호사 래니 데이비스는 "줄리아니가 녹음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한다. 진실은 트럼프가 '현금'(cash) 얘기를 꺼내니까, 그리고 코언이 '노'(No)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ys4174@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9월 당시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자신의 성추문 관련 대응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CNN 방송이 입수해 공개했다

백악관 언론 길들이기? CNN 기자에 분풀이

CNN 기자 불편한 질문에 행사 취재 '금지'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백악관이 25일 CNN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보복 행위를 했다. 풀(pool) 취재 기자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던 카이틀란 콜린즈 CNN 백악관 출입기자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날 CNN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스캔들'과 관련,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 대화를 나누는 육성 파일을 공개해 보도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콜린즈 기자는 방송 기자들을 대표해 집무실을 찾았다. 모든 기자가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 대표 기자가 취재하는 풀(pool) 취재는 관행이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날 콜린즈 기자는 러시아, 그리고 코언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했다.

"코언 변호사가 당신을 배신했나요?"라는 질문을 반복했고 "당신은 코언이 특검에 어떻게 말할지를 걱정하고 있나요? 그 테이프에 다른 무엇이 또 있는지 우려되나요"라고 콜린즈 기자는 물었다. 하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후 콜린즈 기자는 폭스뉴스 출신인 빌 사인 미 백악관 공보국장에게 호출됐다.

사인 공보국장은 새라 샌더스 대변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이 회동 이후 로즈가든에서 갖는 행사에 취재하러 오지 못하게 했다.

콜린즈 기자는 "그들은 '당신은 오늘 로즈가든에 취재 접근을 허가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내가 한 질문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내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다.

CNN은 성명을 통해 콜린즈의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CNN은 "백악관이 뉴스와 관련된 질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질문이 적절하지도 않고 요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다"면서 "언론을 금지한 이번 결정은 본질적으로 보복적인 것이며,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 기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백악관의 보복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s91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트럼프 EU와는 휴전, 중국과는 무역전쟁 계속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무역전쟁을 피하기로 합의한데 비해 중국에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압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 백악관에서 만나 무역전쟁을 피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은 무역협상을 개시해 최근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이에 관련된 보복관세 문제를 풀기로 했다.

유럽은 당장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 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융커 위원장과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무보조금을 향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대규모로 미국의 대두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 중에는 자동차 등 추가관세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EU와 협력해 WTO를 개혁하기로 했다"며 "EU와 공동 교역 아젠다 수행할 실무 그룹을 발족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을 개시해 조속하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저평가하는 방법으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에 대한 대립각은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화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불법적인 환율 조작이나 나쁜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며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한 관세 부과와 더불어 달러 강세에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에도 위안화 약세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와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너무 강세며, 연준의 금리인상이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강한 달러는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비해 중국의 위안화는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양보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날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

국, 남아공) 정상회담을 갖고 "어떤 글로벌 무역전쟁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개막연설을 통해 "우리는 일방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 어떤 승자도 있을 수 없는 글로벌 무역전쟁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조되면서 다자주의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문호를 활짝 열어 스스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의 집단적인 부상은 "막을 수 없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뒤 회의 참석 정상들에게도 "경제규모를 떠나 브릭스 정부들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자"고 주창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공격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opark@news1.kr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팝스타 데미 로바토, 약물 과다복용으로 병원 이송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데미 로바토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미 연예 매체 TMZ와 피플은 로바토가 24일 약물(헤로인)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으며,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CNN도 로스앤젤레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25세 여성을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주택에서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 스타가 된 로바토는 수년간 알코올과 약물중독, 정신 건강, 섭식장애 등에 시달렸다.

치료를 위해 2010년부터 재활원을 드나들었고,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난 3월 '중독에서 벗어난 지 6년이 됐다'고 자축하기도 했지

만, 6월에 공개한 곡 'Sober'에서는 약물중독 증세가 재발했다고 고백했다.

로바토는 "미안해요. 더는 팬 정신이 아니에요. 아빠 용서하세요. 제가 바닥에 술을 흘렸어요"라고 노래했다. "미안해요 나를 떠난 팬들에게도, 또다시 무너지는 날 보게 됐네요.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나도 인간일 뿐이죠"라고도 했다.

로바토는 2004년 '바니와 친구들'에서 아역으로 데뷔해 디즈니 채널의 '캠프 락', '유쾌한 서니'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가수로도 활동을 시작, 'Skyscraper'와 'Confident' 등으로 사랑받았다.

특히 그가 부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 '렛 잇 고'(Let it go)는 이디나 멘젤이 부른 버전과 함께 버전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다. nomad@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HURAM
한미의료관광

고국방문 의료관광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유익한 고객님의 여행에 따라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병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성원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의료관광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종합병원 세란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8, 312호 세란병원
1. 종합병원 2. 내과 3. 외과 4. 소아과 5. 산부인과 6. 피부과 7. 성형외과 8. 치과 9. 한방 10. 재활의학과 11. 방사선과 12. 병리과 13. 예방의학과 14. 응급의학과 15. 중환자실 16. 수술실 17. 입원실 18. 주차장 19. 편의점 20. 카페 21. 식당 22. 호텔 23. 모텔 24. 아파트 25. 빌딩 26. 공장 27. 학교 28. 도서관 29. 박물관 30. 미술관 31. 체육관 32. 수영장 33. 골프장 34. 테마파크 35. 동물원 36. 식물원 37. 관광지 38. 명소 39. 유적지 40. 문화재 41. 기념물 42. 동상 43. 조각 44. 회화 45. 사진 46. 영상 47. 공연 48. 전시 49. 축제 50. 행사 51. 모임 52. 회의 53. 세미나 54. 컨퍼런스 55. 웨딩 56. 파티 57. 결혼식 58. 생일 59. 크리스마스 60. 추석 61. 설날 62. 추석 63. 설날 64. 추석 65. 설날 66. 추석 67. 설날 68. 추석 69. 설날 70. 추석 71. 설날 72. 추석 73. 설날 74. 추석 75. 설날 76. 추석 77. 설날 78. 추석 79. 설날 80. 추석 81. 설날 82. 추석 83. 설날 84. 추석 85. 설날 86. 추석 87. 설날 88. 추석 89. 설날 90. 추석 91. 설날 92. 추석 93. 설날 94. 추석 95. 설날 96. 추석 97. 설날 98. 추석 99. 설날 100. 추석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안과 전문의 성모안과
1. 안과 전문의 2. 안과 전문의 3. 안과 전문의 4. 안과 전문의 5. 안과 전문의 6. 안과 전문의 7. 안과 전문의 8. 안과 전문의 9. 안과 전문의 10. 안과 전문의 11. 안과 전문의 12. 안과 전문의 13. 안과 전문의 14. 안과 전문의 15. 안과 전문의 16. 안과 전문의 17. 안과 전문의 18. 안과 전문의 19. 안과 전문의 20. 안과 전문의 21. 안과 전문의 22. 안과 전문의 23. 안과 전문의 24. 안과 전문의 25. 안과 전문의 26. 안과 전문의 27. 안과 전문의 28. 안과 전문의 29. 안과 전문의 30. 안과 전문의 31. 안과 전문의 32. 안과 전문의 33. 안과 전문의 34. 안과 전문의 35. 안과 전문의 36. 안과 전문의 37. 안과 전문의 38. 안과 전문의 39. 안과 전문의 40. 안과 전문의 41. 안과 전문의 42. 안과 전문의 43. 안과 전문의 44. 안과 전문의 45. 안과 전문의 46. 안과 전문의 47. 안과 전문의 48. 안과 전문의 49. 안과 전문의 50. 안과 전문의 51. 안과 전문의 52. 안과 전문의 53. 안과 전문의 54. 안과 전문의 55. 안과 전문의 56. 안과 전문의 57. 안과 전문의 58. 안과 전문의 59. 안과 전문의 60. 안과 전문의 61. 안과 전문의 62. 안과 전문의 63. 안과 전문의 64. 안과 전문의 65. 안과 전문의 66. 안과 전문의 67. 안과 전문의 68. 안과 전문의 69. 안과 전문의 70. 안과 전문의 71. 안과 전문의 72. 안과 전문의 73. 안과 전문의 74. 안과 전문의 75. 안과 전문의 76. 안과 전문의 77. 안과 전문의 78. 안과 전문의 79. 안과 전문의 80. 안과 전문의 81. 안과 전문의 82. 안과 전문의 83. 안과 전문의 84. 안과 전문의 85. 안과 전문의 86. 안과 전문의 87. 안과 전문의 88. 안과 전문의 89. 안과 전문의 90. 안과 전문의 91. 안과 전문의 92. 안과 전문의 93. 안과 전문의 94. 안과 전문의 95. 안과 전문의 96. 안과 전문의 97. 안과 전문의 98. 안과 전문의 99. 안과 전문의 100. 안과 전문의

이규호 모발이식센터
"오직 비열게 사들인 것을 고집합니다"
모발이식 전문의 이규호
1. 모발이식 전문의 2. 모발이식 전문의 3. 모발이식 전문의 4. 모발이식 전문의 5. 모발이식 전문의 6. 모발이식 전문의 7. 모발이식 전문의 8. 모발이식 전문의 9. 모발이식 전문의 10. 모발이식 전문의 11. 모발이식 전문의 12. 모발이식 전문의 13. 모발이식 전문의 14. 모발이식 전문의 15. 모발이식 전문의 16. 모발이식 전문의 17. 모발이식 전문의 18. 모발이식 전문의 19. 모발이식 전문의 20. 모발이식 전문의 21. 모발이식 전문의 22. 모발이식 전문의 23. 모발이식 전문의 24. 모발이식 전문의 25. 모발이식 전문의 26. 모발이식 전문의 27. 모발이식 전문의 28. 모발이식 전문의 29. 모발이식 전문의 30. 모발이식 전문의 31. 모발이식 전문의 32. 모발이식 전문의 33. 모발이식 전문의 34. 모발이식 전문의 35. 모발이식 전문의 36. 모발이식 전문의 37. 모발이식 전문의 38. 모발이식 전문의 39. 모발이식 전문의 40. 모발이식 전문의 41. 모발이식 전문의 42. 모발이식 전문의 43. 모발이식 전문의 44. 모발이식 전문의 45. 모발이식 전문의 46. 모발이식 전문의 47. 모발이식 전문의 48. 모발이식 전문의 49. 모발이식 전문의 50. 모발이식 전문의 51. 모발이식 전문의 52. 모발이식 전문의 53. 모발이식 전문의 54. 모발이식 전문의 55. 모발이식 전문의 56. 모발이식 전문의 57. 모발이식 전문의 58. 모발이식 전문의 59. 모발이식 전문의 60. 모발이식 전문의 61. 모발이식 전문의 62. 모발이식 전문의 63. 모발이식 전문의 64. 모발이식 전문의 65. 모발이식 전문의 66. 모발이식 전문의 67. 모발이식 전문의 68. 모발이식 전문의 69. 모발이식 전문의 70. 모발이식 전문의 71. 모발이식 전문의 72. 모발이식 전문의 73. 모발이식 전문의 74. 모발이식 전문의 75. 모발이식 전문의 76. 모발이식 전문의 77. 모발이식 전문의 78. 모발이식 전문의 79. 모발이식 전문의 80. 모발이식 전문의 81. 모발이식 전문의 82. 모발이식 전문의 83. 모발이식 전문의 84. 모발이식 전문의 85. 모발이식 전문의 86. 모발이식 전문의 87. 모발이식 전문의 88. 모발이식 전문의 89. 모발이식 전문의 90. 모발이식 전문의 91. 모발이식 전문의 92. 모발이식 전문의 93. 모발이식 전문의 94. 모발이식 전문의 95. 모발이식 전문의 96. 모발이식 전문의 97. 모발이식 전문의 98. 모발이식 전문의 99. 모발이식 전문의 100. 모발이식 전문의

노상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노상훈
1. 성형외과 전문의 2. 성형외과 전문의 3. 성형외과 전문의 4. 성형외과 전문의 5. 성형외과 전문의 6. 성형외과 전문의 7. 성형외과 전문의 8. 성형외과 전문의 9. 성형외과 전문의 10. 성형외과 전문의 11. 성형외과 전문의 12. 성형외과 전문의 13. 성형외과 전문의 14. 성형외과 전문의 15. 성형외과 전문의 16. 성형외과 전문의 17. 성형외과 전문의 18. 성형외과 전문의 19. 성형외과 전문의 20. 성형외과 전문의 21. 성형외과 전문의 22. 성형외과 전문의 23. 성형외과 전문의 24. 성형외과 전문의 25. 성형외과 전문의 26. 성형외과 전문의 27. 성형외과 전문의 28. 성형외과 전문의 29. 성형외과 전문의 30. 성형외과 전문의 31. 성형외과 전문의 32. 성형외과 전문의 33. 성형외과 전문의 34. 성형외과 전문의 35. 성형외과 전문의 36. 성형외과 전문의 37. 성형외과 전문의 38. 성형외과 전문의 39. 성형외과 전문의 40. 성형외과 전문의 41. 성형외과 전문의 42. 성형외과 전문의 43. 성형외과 전문의 44. 성형외과 전문의 45. 성형외과 전문의 46. 성형외과 전문의 47. 성형외과 전문의 48. 성형외과 전문의 49. 성형외과 전문의 50. 성형외과 전문의 51. 성형외과 전문의 52. 성형외과 전문의 53. 성형외과 전문의 54. 성형외과 전문의 55. 성형외과 전문의 56. 성형외과 전문의 57. 성형외과 전문의 58. 성형외과 전문의 59. 성형외과 전문의 60. 성형외과 전문의 61. 성형외과 전문의 62. 성형외과 전문의 63. 성형외과 전문의 64. 성형외과 전문의 65. 성형외과 전문의 66. 성형외과 전문의 67. 성형외과 전문의 68. 성형외과 전문의 69. 성형외과 전문의 70. 성형외과 전문의 71. 성형외과 전문의 72. 성형외과 전문의 73. 성형외과 전문의 74. 성형외과 전문의 75. 성형외과 전문의 76. 성형외과 전문의 77. 성형외과 전문의 78. 성형외과 전문의 79. 성형외과 전문의 80. 성형외과 전문의 81. 성형외과 전문의 82. 성형외과 전문의 83. 성형외과 전문의 84. 성형외과 전문의 85. 성형외과 전문의 86. 성형외과 전문의 87. 성형외과 전문의 88. 성형외과 전문의 89. 성형외과 전문의 90. 성형외과 전문의 91. 성형외과 전문의 92. 성형외과 전문의 93. 성형외과 전문의 94. 성형외과 전문의 95. 성형외과 전문의 96. 성형외과 전문의 97. 성형외과 전문의 98. 성형외과 전문의 99. 성형외과 전문의 100.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226)
79126 | 81634354940 | D.huram@haram.com
haram@haram.com / www.huram.com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원격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추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보도검열단 · 합수부, 전언론 통제 · 위반시 징역, 계엄문건 보니

국방부, 67장 분량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매체별 통제요원 전담 마크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 통제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자료까지 포함해 6p 걸친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기무사는 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의 보도내용을 사전 검열하고 불온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보도검열 조직을 편성했다.

이 조직은 계엄사 보도검열단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으로 나뉘어졌다.

계엄사 보도검열단은 방송과 신문 등 9개반 48명으로 계획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했다가 동원인원을 현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의 경우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계획됐다. 특히 방송·신문·통신매체는 보도시 파급효과가 커 매체별로 통제요원을 운영토록 했다.

방송의 경우 KBS 등 공·민영방송 4개소, 기독교 방송 등 특수방송 8개소, YTN 등 케이블 뉴스채널 등 7개소는 모두 계엄사 요원 2명과 방통위 요원 1명, 합수본부 대책반 1명으로 4명으로 통제요원이 구성됐다. 유원미디어 등 DMB방송 3개소는 앞선 매체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계엄사 요원이 1명으로 줄어들어 3명으로 구성됐다.

성됐다.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등 종합일간 11개소는 계엄사 3, 문체부 10명, 합수본부 1 등 14명으로 가장 많은 통제요원이 붙었고 매일경제 등 경제일간 7개소는 계엄사 2, 문체부 8, 합수본부 1 등 11명이 마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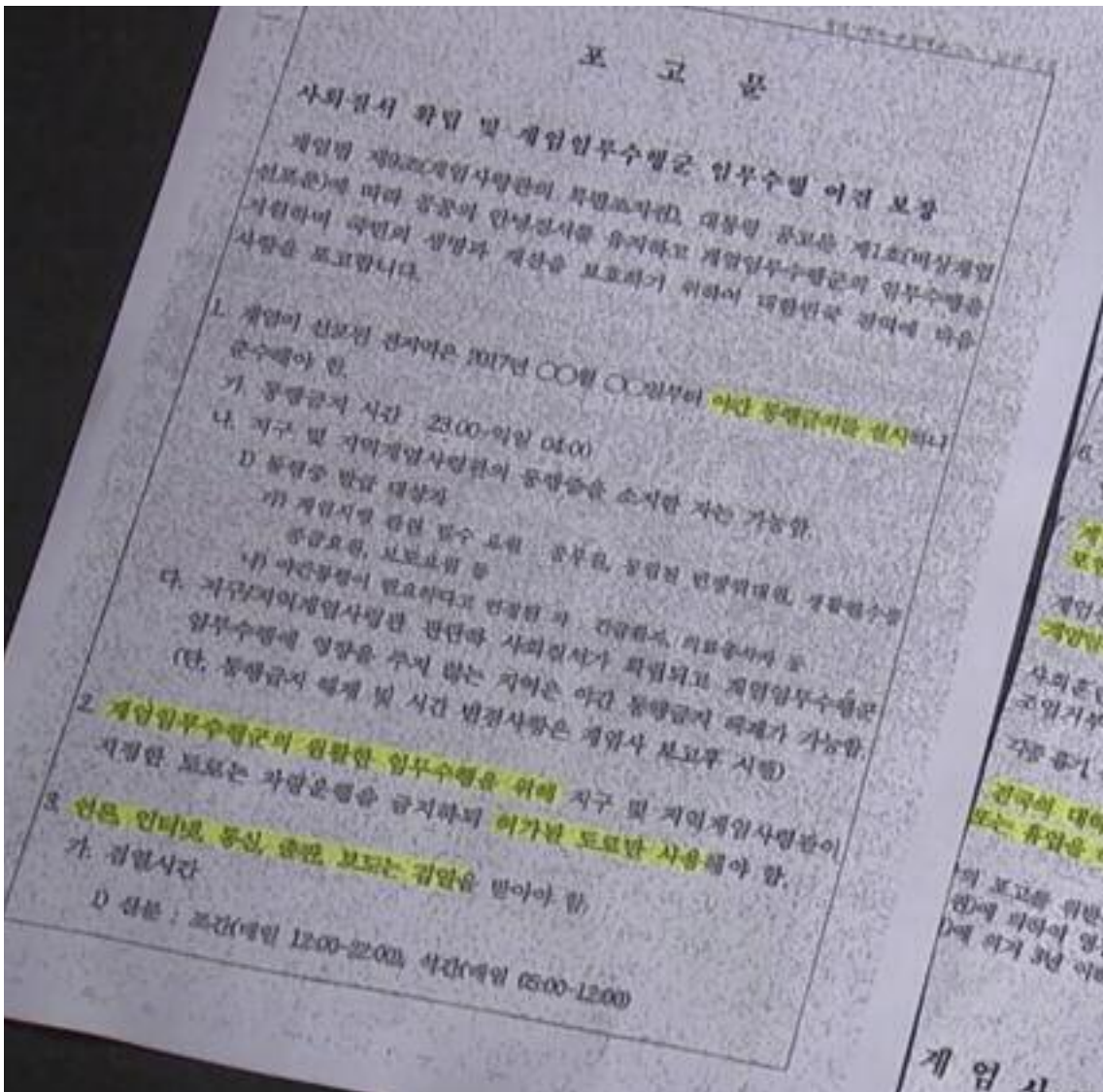
IT·스포츠신문 5개소는 계엄사 2, 문체부 4, 합수본부 1 등 7명이, 포커스 등 무료신문 3개소는 계엄사 1, 문체부 3, 합수본부 1 등 5명이 전담했다.

통신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 2개소와 동아닷컴 등 인터넷신문 6개소는 모두 계엄사 1, 문체부 2, 합수본부 등 총 4명이 맡았다.

지역매체의 경우 경인방송 등 공·민영방송 32개소, 강원일보 등 지역일간 14개소는 지구·지역 계엄사에서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기무사는 또 관련기관과 매체들을 대상으로 계엄에 유해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며 군 사기를 저하하거나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내용은 보도를 금지하게 했고 정부와 군의 발표, 반정부 의식을 불식시키는 내용,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확대보도하게 했다.

조간신문의 경우 매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석간신문의 경우 매일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주·월간지 및 기타 매체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열하기로 했다. 방송 및 통신 매체는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3일 훗날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포고문'

로 했다.

신문 가판과 방송·통신의 원고, 간행물의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는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약 언론이 보도검열을 위반할시 1차는 경고조치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기자실 출입금지, 보도증 회수, 현

장취재 금지, 외신매체의 경우 출국조치를 내리고 3차로 위반시에는 3년 이하에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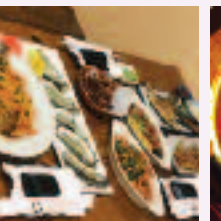
그럼에도 지침을 지속 위반할 시에는 매체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고 보도 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필요시 KBS1 TV 및 라디오로 전국 단일 방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정부의 보도창구는 정부발표(문체부 장관)와 계엄상황 브리핑(국방부·계엄사)으로 최소화했으며 기자단 운용은 문체부에 프레스센터를 개소해 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에 외신대책반을 운용해 매 상황 관련 정부의 입장자료를 배포할 계획도 세웠다.

eggod6112@news1.kr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LY 27 - AUG. 2, 2018

KOREAN PHILLY CHEESE EGG ROLL

EGG ROLL MEETS PHILLY CHEESE STEAK AND KOREAN BULGOGI! CRISPY EGG ROLL + MELTING CHEESE + SAVORY AND JUICY BULGOGI = HEAVEN IN YOUR MOUTH...!!! LEARN HOW TO MAKE IT RIGHT NOW!
H마트와 Bop N Grill의 William Song 셰프가 전하는 한식 퓨전 불고기 에그롤 레시피! 달달한 불고기와 에그롤의 바삭한 식감, 한 입 베어 물면 흘러내리는 치즈가 일품인 침샘복발 불고기 에그롤을 만들어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유망점으로 성공창업을 하시신다면 지금 문의주세요! CONTACT info@marketeatery.com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호지사와 프리미엄 \$1.49 lb.	Lotus Root 연근 \$1.88 lb.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4.99 ea.	Packed Garlic 팩 마늘 5oz/pkg 2\$3 pkg./for	White Nectarine 화이트 넵타린 \$1.99 l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 - 14-16oz/pkg \$0.99	Gobo 우엉 \$1.99 lb.	FRIDAY/SUN ONLY 27/28/29 ONLY Washington Red Cherry 레드 체리 \$2.49 lb.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FRIDAY/SUN ONLY 27/28/29 ONLY White Peach 백도 \$1.99 lb.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스테이크 \$6.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생삼겹살 \$7.99 lb.
Chicken Tenderloin 닭 안심 \$2.99 lb.	Boneless Pork Loin 본카스용 돼지등심 \$4.99 lb.
Beef Heel Meat 사태 \$7.99 lb.	Marinated Beef Ribeye Steak 오렌지(비건) 등심 스테이크 \$6.99 lb.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Sliced Red Dried Squid 홍진미 오징어채 \$14.99 lb.	TONG TONG BAY Unagi 10oz/pkg 통통배 우라기 \$9.99 lb.
TONG TONG BAY Roasted Dried Anchovy 통통배 볶은멸치 2lb/pkg \$29.99 lb.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10-20's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5.99 lb.
TONG TONG 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8.99 8oz/pkg.	Whiting 생래 \$1.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	MARU Biofuel Soft Drink Yogurt 매일 요구르트 63oz x 24ea/pkg \$2.99
HARU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루 인삼 닭곰탕 1.75 lb. \$8.99	HARU Canned Bai Toi Shell 하루 캔 베이토이 등심 14.1oz. \$4.99

2018 H-MART 와 함께하는 오리온 특별전

오리온과 함께 세계 어디에서나 즐겨보세요!
JULY 27TH - JULY 29TH
AT H-MART BURLINGTON AND CAMBRIDGE

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이 쌀 15 lbs. \$9.99	GWANGCHUN Green Tea Seaweed Set 강원 녹차 도넛떡 + 김치용 세트 0.17oz x 15ea/pkg + 6cm container \$9.99	KADOYA Pure Sesame Oil 카도야 참기름 591oz \$14.99	GI Strip Dumpling GI 베이코 왕코지 만두 Pork & Veg Chicken & Veg - 2 lbs. \$8.99	ORION Gosomi Cracker 오리온 고소미 11.28oz. \$3.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picy Noodles 푸드셀 콩국면 1.5 lb. \$2.55	HADOREUM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3.99	EMERALD Makara Ice Cream Bar 빙그레 매로나 아이스크림 All Flavors 2.77oz x 8ea/pkg. \$3.99	CHIN JUNG HONG Hwangsoo Pils 침정원 황호 하이탈 플리스 All Flavors 200ml. \$6.99	HADOREUM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주스 1.5L. \$2.55
NESTLE Matcha Kit Kat 네슬레 녹차 킷캣 5.1oz. \$4.99	I WANT Paper Towel 아이원드 베이퍼 타월 12x16in/pkg \$10.99	BBQ Skewers 바베크용 꼬치 32oz/pkg \$3.49	STARSPORTS Badminton Feather New Free Tour 1.0 스타 스포츠민턴 라켓 2pc/pkg \$7.99	STARSPORTS Feather Shuttlecock 스타스포츠 셔틀콕 10cm/pkg - pkg \$3.4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mistak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nus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nus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4 / STORE HOURS: Sun - Thur: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노정희 · 이동원 보고서 채택, 김선수 진통

청문특위, 오후 김선수 보고서 채택 시도...진통 불가피
여야 원내지도부, 오전 10시 본회의 → 오후 4시로 연기

(서울=뉴스1) 박기호, 구교운, 전 형민, 이형진, 김세현 기자 = 국회는 26일 노정희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채택에 반대하는 김선수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는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낮 12시33분쯤 3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노정희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고 정회했다.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한국당의 반발로 청문특위 전체회

의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개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노정희 · 이동원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세 명의 후보자 모두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처럼 청문특위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에 나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자유한국당 김성태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갖고 오전 10시에 소집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 같은 합의 직후 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머리를 맞댔고 노정희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먼저 채택하고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노정희 · 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그렇지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보고서 채택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선수 · 노정희 · 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진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오후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명의 후보자 모두 오늘 처리를 해야 본회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오후 4시 본회의가 또 연기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교섭단체 합의대로 두 사람(노정희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은 저희 당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면서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선 어렵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현재 어렵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

약자들위해 싸웠던 노회찬, 사흘 동안 1만2천명 함께 울었다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장례 사흘째인 25일에도 하루 종일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각계각층,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상임장례위원장인 이정미 대표와 호상을 맡은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해 김종대 · 추혜선 ·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정의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오

후부터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했다.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기 위한 조문객의 발길은 이른 오전부터 이어졌다. 오전 9시30분쯤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인 김정순씨와 빈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전날(24일)에도 경남 창원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석현 박광온-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이석현 의원은 조문을 마친 뒤 감

정을 숨기지 못한 채 흐느끼며 빈소를 나왔다.

오전 11시25분쯤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 명계남씨와 소설가 조정래씨, 전원책 변호사 등 노 원내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문화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sesang222@news1.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계,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풀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110 Hudson Road, Stow, MA
Asking price: \$675,000
Listing Agent: Kevin Curry
Phone: 978.852.2969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Rental
424 Washington Street - Unit 1
Gloucester, MA
Asking price: \$2,450/mo
Listing Agent: Bill Busiek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奉 (봉)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All the nations may walk in the name of their gods; we will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for ever and ever. - 미가 4:5.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from the dead--whom you had killed by hanging him on a tree.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 사도행전 5:30-32.

서울 청와대는 23일 “작년 10월 북한 생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직후부터 정보를 받아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이란다.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흘름스크항(港) 부두에서 석탄 4,156톤과 5,000톤을 각각 신고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다. 이 석탄이 한국안에서 유통됐다.

북한 선박들이 흘름스크항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찍혔다. 그후 바로 이 두 배가 들어가 그 석탄을 실었다.

이 증거만으로도 안보리(安保理)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9개월째 ‘조사중’ 이란다. 더구나 유엔(UN) 제재를 어긴 선박은 나포 억류해야 하는데도 정부 기록에 따르면 두 선박은 그 후에도 한국 항구를 32차례나 드나들었다.

국제사회가 구축한 대북(對北) 제재가 무너지면 평화적인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구축된 대북제재가 안되면 북핵(北核) 해결은 평화적으론 불가능해진다.

다른 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게 막아낼 수 있는 정보와 외교력을 갖출 수 있을까?

위성 사진까지 있는 문제를 9개월동안 ‘조사’ 만 하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떨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내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역상이 제재이후 1,000명 수준에서 5,000명으로 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제재가 무너지면 북한이 핵(核)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非核化) 없이는 제재 해제도, 남북협력도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명백히 하고 중·러도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해야 할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은 북한 산업보다 집안사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지난해 1년간 한국 중소기업 해외설립 또는 설비 증설 업체가 1,884업체로 5년 전보다 700여개 늘어났다. 해외투자액은 3배로 늘었다.

그 사이 국내 투자는 3분의 1 이상 줄었고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갔다.

무슨 글로벌 시장 전략이 있어서 해외로 나간 게 아니다.

인건비 부담과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피해 살길을 찾아 생존의 탈출을 하고 있는 것.

한 금형업체의 경우 국내 공장 노동자 월급은 212만원인데 인도네시아에 세운 공장에선 47만원만 주면 된다고, 기업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인 1,300만명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다.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40%~55%인 미국·일본 등 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진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고 근로시간은 단축돼 중소기업 부담이 늘었다.

심야전기요금은 올린다고 야단인데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은 변화를 모른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유인책을 쓴다.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체들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은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공장 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1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정부는 친노동 정책기조를 치달리면서 기업 내뿜을 일만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두자릿 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기업현장에선 중소제조업의 진짜 대탈출

이 내년에 시작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내년 부터 최저 시급 8,350원이 시행되고 후년부터는 직원 수 300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또 다시 제조업의 2차 엑스더스를 걱정할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인을 ‘애국자’ 로 치켜세우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면서 “공영 흡소핑에서 국산품을 팔도록 하겠다” 고 했지만 대책이라는 게 ‘국산품 애용 운동’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노동 시장 구조와 기업환경을 개선해 줄 근본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奉(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人)” 으로 구성된 글자.

인자를 중심으로 위(上) 上部(상부: 하늘)에는 三位(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인자(人子: 예수님)께서 받치고 계시는데 땅에는 두개의 十(십자가)가 아래 위로 겹쳐 있는 그림: 卄 십자가가 둘이 겹쳐있는 것은 위: 하늘에서의 사랑, 영(英: 하늘) 삼위(位)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영님 모두가 대속의 도구로(죄없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소(元素)가 죄를 가지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하늘의 사랑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림이 봉(奉).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 요한복음 16:33 후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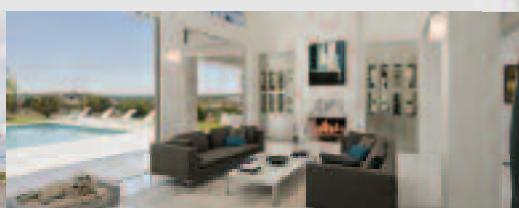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

ASKING \$1,490,000



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

ASKING \$1,250,000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션"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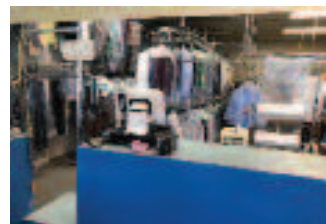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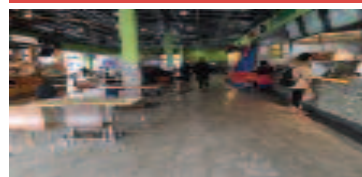


Sung Bin Oh
978.505.3736

S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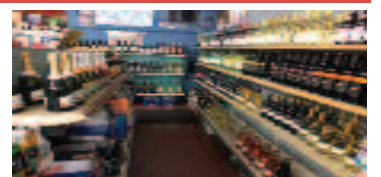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칼장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978-27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광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서명여의갈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613-5372
스프링필드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 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뱀열교회	978-274-2369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헤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슬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킵스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권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판정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밍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셀(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수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해운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병원(노이재음)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발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치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애나진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해운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

유니클로가 '유니크'한 이유

일본어는 모음이 적어서 외국어를 표기하
기에 부적당한 언어이다. 김치를 [기무치]라
하고 McDonald를 [마꾸도나루도]라 하는
걸 보라. 하지만 장점도 있다. 모음이 적다보
니 일본어는 발음하기가 쉽고 다른 언어에
받아들여지기도 쉽다. 게다가 일본어는 외국
어를 받아들여 간단한 신조어를 만드는 신묘
한 기술이 있다. 가짜라는 의미의 '가라'와 영
어 orchestra의 절반을 합하여 만든 '가라오
케'는 거꾸로 영어에 '수출'되었다. 찰 만(滿)
자와 영어 tank를 합한 '만땅'도 일본은 물론
한국에까지 전파되어 자주 쓰인다. 요즘은
왜색을 피하고 순수 한국어를 애용하기 위해
'가득이요' 혹은 '채워주세요'라 하는 사람들
이 많기는 하다.

1984년 히로시마의 한 작은 양품점에서 시
작한 유니클로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매출액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으로 발전했다. 독
특한 이름만큼이나 참으로 독특한 기업이다
. 처음에 '독특한 의류매장(unique clothing
warehouse)'이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일본어
식의 단축법을 적용해서 UniClo란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실수로 C를 Q
로 등록하는 바람에 UniQlo라는 정말 '독특
한'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독특함'을
강조하는 데 직원의 실수가 혁혁한 공헌을
한 셈이다.

잘 알려졌듯이 미국은 50개 주가 하나의
국가로 연합한 나라이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라 한다. uni-는 '하나'라
는 뜻이다. 동창들이 다시 모이는 것은 re-
union이고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모
인 것은 union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
독특한' 것은 홀로 독(獨), 특별할 특(特) 자
를 쓰니까 영어로는 unique이다.

동양인들에게 용은 길조의 동물인데 반해
서양에서는 사특한 동물로 받아들여진다. 대
신에 서양에서는 unicorn을 길조의 동물로
받아들인다. 서양의 유니콘이나 동양의 용이
나 모두 상상의 동물이지만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다르다. uni-는 '하나'이고 corn은 '뿔'
'이니가 unicorn은 '일각수'라 번역한다. 언
젠가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k/는 /h/와 자
주 교체된다. 뿔로 만든 악기인 horn은 정확
히 corn과 동일한 단어이다. 재미있게도 영
어발달사에서 보면 /k/와 /h/의 교체로 인해
바이킹 남자들이 입는 skirt가 shirt로 바뀌었
다는 사실이다. 아래에 입는 옷과 위에 입는
옷이 어원이 같다니 지금 보아도 참 이상하
다.

영어로 우주는 universe이다. 풀이하면 하
나로(uni-) 통하는(verse) 것이란 뜻이다. 합
리성을 추구하는 서양인들은 우주가 하나로
통해 있는, 혹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의 한 인디언어로는 우주를
diverse라 한다고 한다. 풀이하면 다양하게
(di-) 존재하는 것쯤이 되겠다. 하나의 진리
만을 허용하는 서구식 합리주의와 다양성을
허용하는 미국인디언의 우주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동양의 우주는 '큰 집'이란 뜻이다.
역시 동서양의 다른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일방적 관계라고 할 때의 일방적이란 말은
unidirectional이라 하고, 양방향 혹은 쌍방
향이라고 하는 말은 bidirectional이라 할 수
있다. SAT나 TOEFL 시험에서 만날 수 있
는 unicameral, bicameral은 각각 '단원제,
양원제'란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하
나인 정치체제를 unicameral, 미국처럼 상
원과 하원이 있는 정치체제를 bicameral이

라 한다. 여기서 cameral은 사진기 camera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방'이란 뜻의 cham-
ber에서 온 것이다. 하긴 사진기 camera도
원래 chamber를 뜻하는 어원에서 온 것이다
. 사진기는 원래 camera obscura 즉 빛이 없
는 어두운 방이란 말에서 줄인 것이다. 라틴
어 camera가 chamber로 바뀐 것은 구개음
화란 음운규칙과 박식한 학자들이 불필요하
게 집어넣은 b 때문이다.

예배를 볼 때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부
분을 unison이라 표시한다. 역시 uni-는 '하
나로', son은 '소리'란 뜻이다. uniform을 입
은 성가대가 unison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
은 정말로 unified(통일된) 모습의 전형이다.



처녀와 일각수, 1605, 프레스코화, 도메니치노(Domenichino, 1581-1641)

CHA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웨이팅 리스트 오픈

2018년 8월 1일 오전 12시부터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는
패밀리퍼블릭하우징(Family site-based)의 웨이팅리스트
온라인 예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최초 로터리 기간: 2018년 8월 1일부터-8월 31일
8월에 받은 예비신청서는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가 이를 보관했다 8월 31일 이후 웨이팅리스트에
있는 포지션에 배당할 것입니다. 전자 로터리는 무작위로 생성한 예비 신청서의 일시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이후에 선호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선호조건에 관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이후에는
88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예비신청서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날짜와 시간 순에 따라 순서대로
접수 됩니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혼인여부, 가족 신분 등에
기초해 차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및 각종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계소득 자격조건

공공주택에 자격조건이 부합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가족수에 바탕을 둔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0% OF AREA MEDIAN INCOME							
1 Person	2 People	3 People	4 People	5 People	6 People	7 People	8 People
\$56,800	\$64,900	\$73,000	\$81,100	\$87,600	\$94,100	\$100,600	\$107,100

예비신청서 접수시간 및 랩탑 장소

만약 컴퓨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S	DATES	TIMES
MANNING APTS 237 FRANKLIN ST. CAMBRIDGE, MA	August 1st, 15th, 29th	10 AM - 1 PM
JEFFERSON PARK 1 JACKSON PL. NORTH CAMBRIDGE, MA	August 7th, 14th, 21st	10 AM - 1 PM
PISANI CENTER 133 WASHINGTON ST. CAMBRIDGE, MA	August 6th, 20th	4 PM - 7 PM
ROOSEVELT TOWERS 14 ROOSEVELT TOWERS CAMBRIDGE, MA	August 2nd, 30th	9 AM - 12 PM
MANNING APTS 237 FRANKLIN ST. CAMBRIDGE, MA	August 16th	4 PM - 7 PM

예비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요청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요청하려면 주택공사 (617-520-6532)로 전화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Duany Catholic Church

2018년 6월10일부터 9월2일까지
주일 미사 (Sunday)
 오전 7시 30분 (Korean)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30분 (Korean)
 (7월 첫 주부터 한시적으로 11시로 변경)
 오후 4시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심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교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MIDONG CHAIR
SLIDING CHAIR

이런분들에 추천합니다!

- 척추측만증
- 일자목 또는 거북목
-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위가 산만한 학생과 수험생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과 직장인
- 늘 피곤하거나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
-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학생과 직장인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의 기술은 장시간 앉아 있는 회사원,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유도/제공합니다. 슬라이딩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Wing Mechanism

장시간 학습시 압박감을 주던 기존의 등받이 구조를 해결하여 등받이가 항상 등을 지지하고 가슴과 허리를 좌우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 준다.

Sliding Mechanism

학습시 조곤한 머는 부분에 한어도 등이 등받이에 붙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10cm이상 미끄러져 항상 등을 받쳐주고 골반을 모아준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250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167 /월 60개월 + Tax

INADA NEST
\$2,900 **\$6,000**
24개월 + Tax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70
\$139 /월 3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6,900 **\$4,500**
24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와 입증되었습니다!

magniflex
Sleep is life's greatest pleasure



침실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이런분에게 추천합니다!

- 임산부: - 허체부종, -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인한 무게중심 변화
- 수면부: - 깊은 무음수면, - 골반에 관절의 변형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때
- 현대생활에서 하는 일: 스마트 폰 / TV 시청 / 독서 / 노트북
- 목이 불편한 분: 목이 불편한 분 - Zero G (무중력 척도)

더 이상 잠만자는 침대 기구가 아닌 독서, 게임, TV 시청 등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수직, 수평,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멀티 공간'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만린도넛 매장) **201-941-0010**

'라이프' 이동욱vs조승우, 전쟁 서막 올랐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라이프' 이동욱과 조승우의 대립이 시작됐다. 시청률도 함께 상승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Life)' (연출 홍종찬 임현욱, 극본 이수연) 2회는 전국 기준 5.0% (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시청률 상승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4.3% 보다 0.7%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날 상국대학병원에 메스를 꺼내든 구승호(조승우 분)와 반격에 나선 예진우(이동욱 분)의 모습이 그려지며 상국대학병원 낙산의료원 파견 사업의 전모가 드러났다. 구승호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견제도 도입을 결정했던 것. 병원장 이보훈(천호진 분)은 언론에 알려서라도 파견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구승호와 부원장 김태상(문성근 분)은 이보훈이 의문의 죽음을 맞자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와 평가지원금 문제까지 덮으며 파견을 추진하려 했다.

상국대학병원을 수술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승호는 의료진을

상대로 일당백의 설전을 펼쳤다. “서울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에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재. 내가 지금 공공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등 의사들의 항변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렸다. 다만 “흑자가 나는 과는 그럼 파견 대신 돈으로 된다는 뜻입니까?”라며 폐부를 찌르는 예진우(이동욱 분)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구승호는 “달라질 건 이중 몇몇의 근무지뿐입니다”라고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예진우를 주목했다.

예진우는 파견 사업의 숨겨진 속내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였다. 각과별 매출평가액 표에 담긴 숫자는 파견 대상으로 지목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켰다. 이후 병원 게시판에 사망한 이보훈의 이름으로 매출평가액 표와 ‘인도적 지원 아닌 자본 논리에 의한 퇴출’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상국대학병원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밀월관계 끝났다”며 본사 구조실을 불러들인 구승호와



예진우의 엇갈린 표정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라이프'는 병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신념의 대립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몰입감을 선사했다. 승부사 구승호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숫자만 생각하는 기업가와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뤘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생명을 외면할 용기”가 없어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예진우, 환자의 정보를 계열사인 보험회사에 팔려는 구승호, 인력 부족을 연속 근무로 매우는 주경문(유재명 분) 등

은 달을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달랐다. 의사들의 논리와 구승호의 신념은 다른 차원의 의학드라마로 시청자를 뜨겁게 달궜다. 날카롭게 주장을 펼치는 의사들과 일당백으로 논리를 하나씩 깨부수는 구승호의 논쟁은 품격 있고 우아하지만 날 선 긴장감으로 깊이를 더했다. 엇갈리는 시선만으로도 긴장감을 자아내는 배우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는 차원이 달랐다. 뜨겁게 부딪힐 이들의 대립이 더욱 기대를 높였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역시 궁극을 증폭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구조 개편의 결림돌이었을 이보훈의 죽음을 논하는 구승호와 김태상의 모습은 단어 하나와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했다. 구승호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떡깨비’의 정체, 자꾸 나타나는 정체 모를 예진우의 모습 역시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 장면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이수연 표서사의 힘이 밀도 높은 흡인력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한편 '라이프'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7월 29일 -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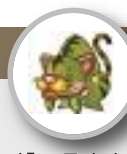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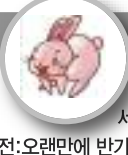
쥐띠 | 처음부터 잘해야
●운수: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틈틈히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 조금만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나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음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편안해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4 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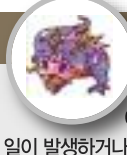
소띠 | 생각을 단순하게
●운수: 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릿만 아프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전: 지출에 신경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정: 본의 아니게 자주 언쟁이 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1일 길일. 29, 4일 주의.



범띠 |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운수: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잘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3일 길일. 30, 31일 주의.



토끼띠 |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운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금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매상이 증가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애정: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인내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9, 30일 길일. 3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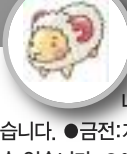
용띠 | 미리 대책을 세우고
●운수: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금전: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지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 무엇이든지 어색하게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이왕에 보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1, 2일 길일. 29,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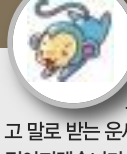
뱀띠 |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운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가까이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서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금전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말띠 | 유리한 변수가
●운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금전: 두경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기겠습니다. ●애정: 부부의 마음이 화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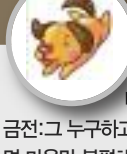
양띠 | 빨리 대화로 풀어야
●운수: 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꼭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각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



원숭이띠 |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운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이니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적어지겠습니다. ●애정: 싱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닭띠 | 하루하루가 새롭고
●운수: 좋은 사람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금전: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옵니다. ●애정: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4일 길일. 31, 3일 주의.



개띠 |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
●운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애정: 영뚱한 사람에게 화를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밍글하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돼지띠 | 길게 내다보고
●운수: 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면 그 덕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해도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3일 길일. 2, 4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영어 통역해 주실 분 구합니다.
T. 781-953-5816

캠브리지에 위치한 작은 한국식당에서 성실이 일하
실분을 구합니다. 월,수 (근무시간: 10:30-20:30)
Email, kksfoods47@gmail.com

밥블레스유 이영자, 최애 삼겹살 맛집 최초 공개 8가지 메뉴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
자= 올리브 '밥블레스유'에서
이영자가 꼭꼭 숨겨뒀던 삼겹
살 맛집이 최초로 공개된다.

26일 밤 9시 방송되는 '밥블
레스유' 6화에서는 최화정, 송
은이, 김숙이 이영자가 소개하
는 삼겹살 맛집에 방문해 평소
이영자가 즐겨 먹는 8가지 메
뉴로 구성된 '영자 코스' 먹방
을 펼친다. 이들은 삼겹살집에
이어 '3단 애프터눈 티세트 카
페'를 찾아 다양한 연애 사연과
함께 어울리는 푸드테라피
(Pick)을 선정해 속 시원한 먹
풀이를 보여줄 예정이다.

녹화 당시, 멤버들의 여름 몸
보신을 위해 오랜 시간 숙성한
돼지고기 맛집으로 안내한 이
영자는 최화정과 함께 고기 숙
성고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포
토 (Photo)월 이 아닌 포크
(Pork)월 시간을 가져 웃음을

자아냈다.

당시 메뉴는 평소 이영자가
즐거 먹는 '영자 &코스'로, 8가
지 메뉴로 구성됐다. 에피타이
저 육회부터 각종 고기에 마무
리 식사까지 정갈하게 갖춰진
코스엔 언니들의 감탄이 끊이
지 않았다. 최화정은 백종원 성
대모사로, 김숙은 광란의 이사
돈 춤으로 만족감을 발산했고,
이에 이영자는 "적어도 올 한해
는 우정이 변치 않을 것 같다"
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
들었다는 후문이다.

겹살로 1라운드를 끝내고,
언니들은 송은이 추천의 '3단
애프터눈 티세트' 카페를 찾은
다. 삼겹살집과 180도 다른 분
위기에 당황한 최화정은 "등과
진 드레스에 장갑을 끼고 왔어
야한다"고 말하자 이영자는 의
아해하며 "조개구이 먹을 때나
장갑을 꺼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들은 층별로 나온
디저트를 우아하게 모두 먹어
치우며 어떤 분위기에서도 위
대(胃大)한 언니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디저트 가게에서는 다
양한 연애 사연과 함께 언니들
의 연애 에피소드 역시 대방출

된다. '모태솔로'의 첫 소개팅
성공기원! 사연을 본 이영자는
과거 소개팅남이 기상천외한
물건에 이름을 새겨 선물했던
사연을 고백해 모두를 폭소케
만들어 궁금증을 더했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한밤' 승리, 사업 많이 하지만 지드래곤 보다 못 벌어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빅
뱅에서 솔로로 돌아온 승리가 '본격연
예 한밤'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24일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선
승리와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이날 사업
가로도 활약중인 승리는 현재 "라면사
업, 클럽, 화장품 사업, 인력공급 회사, 나
노 기술 사업 투자, 바이오 계열 투자, 황
사를 대비한 마스크를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해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

문에 승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드래곤 형이 버는 액수의 한 100
분의 1을 번다"며 아무리 벌어도 지드
래곤을 못 이긴다고 능청스럽게 밝혔다.
그는 "지드래곤 형은 사업을 하는 게 아
니라 (저작권료 수입 등으로) 그냥 돈이
많다"고 능청스럽게 덧붙였다.

또한 이날 승리는 내년 초에 입대 계획
이 있다며 군대에 있는 빅뱅 멤버들을 향
해 영상편지를 띄우며 눈길을 모았다.

galaxy98@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코리아 연재소설

유희주 작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2)

그렇게 몇 번을 기다리던 은미를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도 아닌데 바로 옆 반에 있는 은미를 복도에서도 볼 수 없었다. 우린 서로 피해버리는 사이가 된 것이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자본, 명예, 권력 등으로 판가름 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었던 1970년대에서는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 기본권이 판가름 나기도 했다. 난 세 오빠에게 치여 기득권에서부터 제외된 삶을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 잠시 대학을 준비했던 적이 있다.

3년 내내 주산과 부기에만 매달려 있던 나는 학원을 두어 달 다니다가 포기했다.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 수준을 절감한 것이다. 비틀린 마음으로 청춘을 지나며 나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순간은 수시로 찾아왔다. 지금은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두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저마다 놓인 처지가 다르고 그 처지에 맞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십 대의 나는 6학년 이후로 성장한 그 지적 허영이 절정에 닿아 있던 때였다. 내가 비참함을 수시로 느껴야 했던 것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이들은 그들의 성곽 안에 있는 이들과 사회적 균점을 이루고 있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도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늘 은미

가 생각났다. 젊은 열정을 포기하는 대신 은미의 성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속성과 부합한 열정이 이 세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 속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포기한 것에 의한 것인 도를 닦은 것이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유리한 대로 자기 철학을 이룬다. 은미는 늘 내가 성장의 중요 기점에 서 있을 때 기억에서 살아나는 아이였지만 늘 머리가 강통 같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는 얼굴 표정이 먼저 떠올랐고 그때마다 나의 치졸한 속성은 아직도 여전히 그 아이를 무시하고 있었다.

한식집 입구 주차장에는 서너 대의 자가용이 서 있었다. 나는 한식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에어컨 위에 올려놓은 방향제 때문에 자꾸 재채기가 나서 종업원에게 방향제를 에어컨 바람 없는 곳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때 주인이 나와 알레르기가 있다고 상냥하게 묻고는 방향제를 계산대 밑에 넣었다. 주인은 누굴 기다리냐고 묻는다. 친구를 기다린다는 내 대답에 “친구?” 라고 다시 내게 묻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는 내 대답에 아주 느리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다. “내가 너에게 친구니?” 나는 깜짝 놀라 주인을 올려다본다. 은미다. 미간 사이에 두 개의 곰보 자국이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진 얼굴 뒤에 분명히 있다. 은미는 안채로 들어

가자고 한다. 안채로 들어가는 마당 가운데는 채송화 꽃밭이 있다. 작은 꽃들이 종종종 피어 있다. 채송화만 가득한 꽃밭을 보고 있던 내게 은미가 “꼭 교실 같지?” 라고 말한다. 난 웃으며 은미를 따라 마루 위로 올라갔다. 은미는 우이동에서 기품 있는 한식집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이 한식집 옆으로는 갤러리가 있는데 지금은 은미 남편의 도자기 전시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의 은미를 생각하면 은미의 지금 생활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난 작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고 직업은 연극이나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다. 젊은 날에는 꽤 잘 팔리는 작가였는데 지금은 몇 년에 한 편 정도 드라마로 만들어 질까 말까 하는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작가가 되어 있다. 원고료는 생활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은미의 주거 환경과 하고 있는 일의 규모를 보자 배꼽 밑에서부터 어떤 꼬챙이 하나가 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기세로 뻗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금세 관촬아졌다.

“너 좀 놀랐지? 네가 왜 놀라고 있는지 나는 알아. 난 깊은 네 속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도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괴렸는지 짐작하고 있었어. 난 오늘 좀 알고 싶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아야. 왜 날 그렇게 징그럽다는 듯 괴렸어?”

장난기가 가득 배인 목소리로 묻고 있는

은미의 입꼬리가 살짝 들러 올라갔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오랜 세월 자신 있게 살아온 자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다. 난 이 때문에 너를 멀리했다는 말을 선택하지 못했다. 만약 은미를 생각하면서 단지 그 이유만 있었다면 난 쉽게 ‘네 머리에서 이를 본 순간 그냥 네가 징그러워 보여서 그랬어.’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내게 자라나던 마음을 나는 안다. 세 오빠의 일이라면 술에 절어 살던 아버지도 정신을 꼭 붙잡고 발 벗고 나서곤 했다.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오빠들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디서든 돈을 꾸어 오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에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터처(koreanlit.com)를 운영하고 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축 개업 25주년

저희 태양자동차를 찾아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지식/오랜 경험! 태양 자동차 공업사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하버드대학 입학전형 소송 II”

지난 번 글에서 필자는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이란 단체가 하버드대학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하버드대학 입학전형 소송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두개의 질문을 숙제로 던진 바 있다:

1)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 하버드 신입생 중에서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십니까?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다.

질문 1에 대한 답: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시아계 미국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질문 2에 대한 답: 올해 하버드 신입생 중에서 아시아계 미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통계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전체 인구에서 6% 미만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버드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비리그에 MIT와 스탠퍼드를 포함한 아

이비리그 플러스 대학 대부분에서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이 입학생 중에서 20-30%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는 우리가 6% 미만이지만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 재학생 중에서 20-30%를 대표하는 것이 아시아계 학생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가운데 7개의 대학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가장 큰 인종집단이며, 주립대학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이 학부생 중에서 가장 큰 인종집단이다. 미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들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고등교육 학위 취득 비율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 비중이 가장 높다. 학사학위의 경우 49.8%이다.

그렇다면 하버드가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을 인종차별한다는 소송은 정당한 것일까? 지난 6월 하버드는 16만 건이 넘는 기밀 입학사정 기록과 파일들의 제출을 요구 받았고, 그 결과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지원자들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전에는 사적인 기록들이 이제 공개됨으로써, 그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견해

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어떤 분석을 보면, 하버드가 인종에 따른 선입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버드 입학사정관들이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다른 인종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즉 긍정적 인성, 호감도, 용기, 친절, 주변의 존경 등과 같은 성향을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이라기 보다는 현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가 아시아계와 비아시아계 학생들을 다루어 본 오랜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틀에 짜여 있고, 모험을 꺼리며, 수줍고, 조용하며, 지루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며, 전통에 얽매이고, 전형적이며, 집단의식이 강한 특징들을 보인다고 확신한다. 수 천 장의 지원서를 읽으면서 필자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대체로 재미가 없고, 호소력이 없으며, 사변적이지 못하고,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입학사정관들과 인터뷰 담당자들, 그리고 고교 교사들도 동의하는 바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단순히 말해서 퍼스널리티가 부족하고, 모든 일에 자기 견해가 부족하며

, 대체로 너무 바빠서 사물의 존재나 의미, 적합성에 대해 사유하고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평가는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점을 인정하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으면서, 독창적인 퍼스널리티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은 잠재적인 리더와 미래의 혁신가들을 찾으려 하며, 그 분야는 학문, 과학, 정치, 기업, 연예, 시민사회나 인도주의의 활동영역을 망라한다. 현재 아시아계 공동체에 남겨진 문제는 높은 학점을 가진 시험만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위대한 사상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 창조적인 모험가,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아시아계 미국시민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BOSTONSEAFOODFESTIVAL.ORG

보스턴 수산업 협회



보스턴 해산물 패스티벌
2018년 8월 5일, 일요일
11:00 AM - 6:00 PM
HISTORIC BOSTON FISH PIER

해산물 | 랍스터 베이크 | 하폰 맥주 가든 | 요리사 시연 | 굴까기 대회 | 생선 다듬기 시연 | 라이브 뮤직 | 아동 액티비티

신영의 세상 스케치

65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여!!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한국의 친구가 카카오톡에 메모를 남겼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는 비보를 말이다. 특별히 어느 당의 어느 정치인을 좋다 나쁘다는 아니더라도 한국 정치인들의 활동과 행보를 보면서 아무래도 나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무척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번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내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감출 길 없다.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들과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젊은 시절의 피 끓는 열정과 헌신으로 정치를 시작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노회찬 의원 그는 진보정치의 상징이고 아이콘이었기에 더욱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유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경공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한

다"고 그는 유서에 그렇게 썼다. 그는 양심적인 성격과 시각의 소유자였기에 자신 스스로가 만든 법에 자신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검 수사와 노 의원의 유서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공모 계좌에서 인출돼 현금으로 전달된 이 돈은 법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호 바목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정당간부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이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노 의원은 정당 간부이면서 공직 후보자로 계속 출마했던 '직업 정치인'이다. 따라서 그가 현역 국회의원 이던 시절은 물론 대법원의 '삼성 X파일 사건'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시기를 포함해 언제든지 타인(민법상 친족제외)이 그에게 돈을 건넨다면 '정치자금'이 된다."

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정자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만 주고받아야 '적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돈을 두고 '후원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법적 의미에선 틀린 말이다. '후원금'은 정자법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되는 금전,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따라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노 의원에게 전달된 돈을 '후원금'이라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후원금'이 되려면 노 의원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식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유서에 남긴 글처럼 자신의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잠깐의 실수가 이렇게 커다란 짐을 지게 했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만 것이다. 그는 곧은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서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더 많은 검은 것들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속이고 부인하는 많은 사람 속에서 노 의원은 자신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어 견디지 못해 스스로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촌철살인의 정치인' 참으로 아까운 사람을 잃고 말았다. 가끔 한국 뉴스를 보다가 어수선하고 몰상식한 정치판의 세상을 보며

얼른 채널을 돌려 다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다. 이런 정치 세계에서 그래도 노회찬 의원의 차분하지만 따끔한 일침은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속이 후~ 뚫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별명만큼이나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하고 뚝뚝하게 풀어놓는 그의 말들이 그랬다. 그는 누구의 높낮이를 의식하지 않고 삶이 정치가 되고 경험이 정치가 되어 그대로 현실의 삶을 나누고 실천했던 곧은 정치인이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맞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더욱 진실하게 알게 되는가 싶다.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사흘째인 날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전에 고인이 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온 만큼 일반 시민들이 대거 빈소를 찾으면서 조문객 수는 만 명을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인은 이 세상을 떠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데 이 세상에 남은 우리는 떠난 고인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과 마주할 수 있어 감사하다.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사람이여,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여!!

한담객설閑談客說: 무전여행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요새는 배낭여행이라 하는 모양이다. 무전여행. 한동안 젊은이들 한데 유행하던 말이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등학교 동창 몇과 무전여행을 떠났다. 실은 무전無錢은 아니었는데, 달랑 3등열차비와 뱃삯만 가지고 보름 남짓 돌아다녔다. 배낭을 짊어지고 떠돌아 다녔던 거다. 출발은 청량리역이었다.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영주에서 재북상. 강릉경포대를 거쳐 동해안을 훑어 포항에서 부산에 닿았다. 다시 거제도도, 제주도 백록담을 찍었다. 한라산 하산후엔 서귀포에서 목포로 재상륙했다. 그뻔 청량리 역사驛舍도 허름했다.

배낭여행을 떠났던 청년들도 이제 중노년 배이다. 이들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주력부대라 했다. 아내 손목을 잡고, 남편을 데리고(?)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다. 고생했으니 뭐라 할수 없다. 사는 일이 무전여행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언젠가 읽었던 시이다.

사는 일이 그냥
숨쉬는 일이라는

이 낡은
생각의 驛舍에
방금 도착했다

평생이 걸렸다
(이화은, 여행에 대한 짧은 보고서)

아직 해외여행이 뭐 잠꼬대인가 할적이다. 김찬삼이란 이름이 있다. 혼자 몸으로 지구를 누볐던 여행가였다. 그는 거의 무전으로 아니 최소한 경비로 세계를 여행했던 모양이다. 가형家兄 책꽂이에서 그의 책을 발견하곤, 읽었던 기억이다. 그가 구소련엔 가봤는지, 중국은 여행했는지, 북한엔 가보았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의 고향이 황해도라 했던가?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 했다. 재상봉 뿐만 아니다. 북한에도 어렵지않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올것인가? 무전여행은 아닐것이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 10:10)



배낭? 2백방파리?
무거운 짐이다.
[紅] 2017.7

연휴가 다치면 인천공항은 북새통이라 했다. 해외로 나가고 돌아오는 여행객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다. 한국여권으로 갈 수없는 나라

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게다. 여권파워는 국력 ?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J1 VISA 리스 할부 가능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19,19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143



Automatic, FWD

2017 Hyundai Tucson SE

Lease: **\$10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6,206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7,495



Automatic, AWD

2018 Hyundai Kona SE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879



Automatic, FWD

2018 Hyundai Tucson Limited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0,379



Automatic, AWD

2018 Hyundai Santa Fe SE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4,290



Automatic, AWD

2018 CONSUMER SATISFACTION AWARD DealerRater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7/31/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4)

은퇴자금 롤오버(Rollover)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니던 직장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뱅가드(Vanguard)나 피델리티(Fidelity)와 같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롤오버(Rollover)하는 과정을 확실히 이해

한 다음 시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정은 은퇴자산 전액을 찾은 것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은퇴계좌를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하여 은퇴자금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은퇴계좌 가입자의 나이가 59.5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10% 페널티도 물어야 합니다. 한 번 잘못된 실수는 은퇴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 이라고 합시다. 은퇴자금이 옮겨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합니다. 한 예로

뱅크드로 옮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뱅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일했던 직장에 연락하여 은퇴자금(401k) 등을 직접 뱅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회사 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뱅가드 롤오버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뱅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줍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뱅가드(Vanguard for the benefit of 홍길동)로 작성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뱅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해서 뱅가드로 보내면 됩니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하던 일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여러 은퇴계좌를 한곳에 모아(Consolidation) 운영하지 않으면 투자의 기본인 자산분배(Asset Allocation)와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제대로 형성해서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요구된 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정확히 찾지 않으면 50% 벌금도 내야 합니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IRA 계좌를 한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36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2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들을 봉안해 놓고 배향했던 신궁 신라의 신궁神宮, 5세 풍월주 사다함조에 보면 내물신궁奈勿神宮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다함조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世系를 언급할 때 내물신궁이 나오는데 이곳에도 탈자가 다소 있다. 탈자가 있어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기에 아쉽지만 원문을 인용해 보면,

“사다함은 아버지가 구리지仇利知이고 할아버지는 비량比梁이며, 증조부는 비지比知이고, 고조부는 비태比太이다. 비태의 아내…는 미해공美海公의 딸인데 처음에는 내물왕… 후궁으로 산황山凰을 낳았다. 실성왕이 명하여 내물… 00왕이 들어서자, 후궁으로 들였고 나중에 사랑하는 아우에게 내려 주었다. 실0實0… 미해공… 혹은 말하기를 심황心凰은 실상공實相公의 딸이라고도 한다. 놀지왕이 이에 심황에게 명하여 내물신궁의 주주로 삼았다”

위의 인용문을 뒤이어 증조부인 비지에 관하여 계속된다. 그러면을 유추해 보면 탈자 부분은 사다함의 고조할머니인 비태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것 같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조모가 산황인지 심황인지 구별이 잘 안된다. 미루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심황이 내물왕(제17대)의 후궁으로 있다가 다

시 실성왕(제18대)이 왕위에 오르면서 실성왕의 후궁으로 산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성왕은 나중에 심황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난 후 내물왕의 아들인 놀지가 제19대왕으로 등극하면서 심황에게 명하여 내물신궁의 제사를 주관하는 신관神官으로 임명하였다(그런데 비태의 아내를 심황으로 보면 관계가 조금 복잡해진다. 미해공은 다른 이름이 미사흔 또는 미사흠으로 내물왕의 3남이다. 즉 놀지왕의 막내 동생이다. 그 미해의 딸이 다시 할아버지 내물왕의 후궁이 되었다는 것과 내물왕과 놀지왕의 재위년도를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년도의 격차를 보인다. 그리고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미해의 부인은 청아이고, 청아는 박제상의 딸이며 그들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수리이다. 그래서 원문의 탈자가 많아서 아쉽다. 결국 위의 “혹은 말하기를 심황은 실상공의 딸이라고도 한다” 는 구절이 설득력을 더 얻는다. 심황이 비태의 부인인지 산황이 부인인지, 또는 심황이 미사흔의 딸인지 산황이 딸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황이 내물신궁의 제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놀지왕(재위 417 ~ 458년)은 내물왕(재위 356 ~ 402)의 아들이다. 둘 다 40년 이상 왕위에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실성왕이 15년간 재위하였다. 실성왕은 내물왕의 사위였다.233) 아마도 놀지가 어려서 실성이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심황은 내물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그가 죽은 후, 실성왕의 후궁을 거쳐 실성왕의 동생의 부인이 되었다가 놀지가 등극한 후 내물신궁의 제주祭主, 즉 신관神官이 되었다. 이렇듯 화랑세기를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을 뒤집는 기록이 나온다. 현존하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진본이라면, 즉 필사자 박창화가 일본 왕실도서관 서능부에 소장된 화랑세기 원본을 필사했다면 신궁神宮의 존재는 100여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는 신궁의 설치에 관한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소지왕(제21대, 재위 479 ~ 500년)대로 또 하나는 지증왕(제22대, 500 ~ 514년)대로 기록되어 있다. 명칭이 조금 달랐을지라도 같은 개념의 신궁이 이미 내물왕 시대에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즉 박혁거세 사후에 제2대 남해왕이 박혁거세 동생인 아로에게 제사를 주관한 것과 같이, 시조모의 사당과 유사한 사당들이 모든 왕들을 신주로 봉안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같다. 그렇게 여러군데 산재한 사당들을 소지왕대나 지증왕대에 한곳으로 합쳐서 신궁으로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고 중요한 점은 신궁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모두 여자였다는 것이다.

즉 화랑세기 서문에 나오는 “화랑은 선도다. 우리나라에서 신궁을 받들고 대제를 행하는 것은… 중략…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로 원화를 삼게 했다” 진흥왕 즉위시 그의 어머니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기 까지는 아마도 원화들은 제주가 되어서 신궁의 제사를 주관하였음이 분명하다.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 나오는 신궁과 원화의 기록들을 함께 보면 ‘신궁과 원화’를 이해하는 폭이 무한히 확장된다.

233) 내물왕의 아버지는 각간 김말구이다. 왕후 보반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아류부인과 장남 놀지, 차남 복호, 막내아들 미사흔을 두었다. 아류부인이 실성왕의 왕후이며 내물왕의 장남인 놀지가 어려서 사위 실성이 왕위에 올랐으며, 그들은 딸 둘만 낳았다. 장녀 아로부인은 놀지의 비가 되었고, 차녀 치술공주는 박제상의 부인이 되었다(박제상 사후 다시 놀지의 후궁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왕위는 내물왕의 장남인 놀지에게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나무위키,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비즈니스 시작하기 (3)

S corporation과 LLC의 비교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LLC가 행정절차 간소

법인(corporation)이나 LLC는 요건을 갖춰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설립이후에도 각종 서류나 양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LLC가 corporation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나 양식등이 적어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LLC는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배분 할 수 있어

S corporation은 법인의 이익을 반드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그런데 LLC는 소유주(member)들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special allocation). 다만, 세법상으로는 LLC의 이익을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substantial economic effect). 그렇지 않으면 지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member의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익을 주주(member)들에게 그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부하고자 할 계획이 있다면 LLC를 선택해야 한다.

LLC는 영속적이지 못하고 지분양도에

도 제약있어

S corporation은 주주와 별개의 조직체이므로 주주 개개인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LLC는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LLC의 경우 member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등 LLC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차이는 S corporation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수도 할 수 있는데 반해, LLC의 member는 지분을 양수도하고자 할 때, 다른member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주주(member)의 개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성있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지분이 자유롭게 양수도 되기를 원하면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한다.

LLC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비즈니스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 간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S corporation이나 LLC(C corporation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세는S corporation이나 LLC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member)에게 직접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S corporation과 LLC에 다르게 적용된다. LLC의 경우 소유주(member)에게 이전된 소득 전액에 대해 자영업세

가 과세된다. 그런데 S corporation의 경우는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고, 주주가 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00발생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김한국씨가 1인 주주S corporation과 1인 member LLC를 설립한다고 가정하여 둘을 비교해 보면,

1인 주주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에서 주주에게 이전된(pass-through) \$100,000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1인 member LLC(Single member LLC)의 경우, 김한국씨는 LLC의 소득 \$100,000전액에 대해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한다.

S corporation의 직원에겐 반드시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그럼 위 김한국씨가 S corporation을 설립해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이전받는다면(pass-through),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안 내도 되니 훌륭한 절세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IRS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위 김한국씨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을 방지하고자 S corporation은 직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만약 위 김한국씨가 S corporatio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받는다면 IRS는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일정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과세한다.

결론적으로 위 김한국씨의 경우 소득 중 적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이전한다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줄일 수는 있다.

반드시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하나?

법률적 장단점을 논외로 하고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S corporation이 LLC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state)정부에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한 후 IRS에 S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하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으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 중 LLC 스스로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LLC를 설립한 후 LLC의 세금신고 방법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법률적으로는 LLC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무측면에서는 S corporation으로 취급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 LLC는 반드시 S corporation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World-Okta NJ

Boston-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2018 북미 차세대 지도자 아카데미

AUGUST 17-19

Hilton, Hasbrouck Heights / Meadowlands, NJ

3 일간의 영감, 네트워킹, 학습 및 검증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자격 조건

젊은 한인 2세 차세대 지도자 중,
DC (MD), FL, GA, IL, MA, NC, NJ, NY, SC, VA 지역에
거주하는 20-39 세 사이의 지도자.

Hosted by World-Okta NJKACC 

APPLY

www.2018okta.splashthat.com



신청: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차세대 위원장 허 훈 (neptunehoon@yahoo.com)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2018년 7월 넷째주)

● 투자이민 (Processing)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투자이민의 최저투자 금액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년간 인상에 대한 제안이 국회에 꾸준히 제출됐었지만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월에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에 따른 제안이라 이번엔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최저 투자금액이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50만불이 하한 투자 금액인 리저널 센터는 135만불로 인상되며 기존의 100만불인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 하한액은 180만불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이민국과 국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자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했고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이민국과 국회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저 투자금의 대대적 인상으로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듦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수많은 리저널 센터들이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어 투자 후 아직 영주권을 못받은 투자자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난립했던 자격미달의 리저널 센터들이 사라지게 되고 투자금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총 5년이상 소요되는 완전한 영주권 취득 기간의 단축이 예상됩니다.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와 송금 등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조건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여러 경로로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투자이민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투자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상황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투자이민의 성공한 분들의

조언이 앞으로 틀릴 수도 있으니 이런 조언들도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료 인상과 신청서 개정
빠르면 이번 9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SEVIS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현

행 \$200 에서 \$350 로 J 비자인 경우 현행 \$180 에서 \$220 로 SEVIS FEE 인상안이 제 안됐습니다.
또한, 7월16일부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 Form I-765 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Form I-140 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오는 9월17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 개정된 신청서만 쓰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별거와 혼인 무효의 법적 의미와 이혼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별거(separation)나 혼인 무효(annulment) 등 이혼 외의 대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자녀가 없고, 부부재산도 많지 않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이 갖는 법적 특성 때문에, 이혼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도 별거나 혼인 무효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별거와 혼인 무효의 법적 의미와, 이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는데, 실제로 가정법 상으로는 네 가지 종류의 별거가 있습니다. 우선 시험별거(trial separation)는 부부가 정식으로 별거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종의 수습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별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 배우자가 이러한 시험별거 기간 동안에 쌓은 자산이나 빚은 부부 재산(marital property)으로 공유됩니다. 시험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해도, 재산 분할이나 부부 간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

는 별거 전과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합가할 의사 없이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를 사실상 별거(living apart) 상태로 따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별거입니다. 이러한 주에서는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축적한 부채는 각자의 개인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씬스밈과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별거를 선택할 시 본인의 재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영구적으로 따로 살 것을 결정한 경우, 이를 흔히 영구적 별거(permanent separation)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시험 별거가 영구적 별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면 부부가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별거할 의도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부분의 주 법 하에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축적한 부채는 각자의 개인자산이 됩니다. 다만 영구적인 별거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별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 법에 따라서는 영구적 별거 중에 신혼집을 관리하거나 일용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우자 중 한 명이 빚을 얻었다면 그 빚도 배우자 간 연대책무가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별거가 바로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로, 이는 부부가 별

거를 결심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 분할, 위자료 (정확한 명칭은 별거 수당),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 등을 법정 명령으로 공식화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칠 것이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적 별거를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 완전히 법적 관계를 끊고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데 반하여, 별거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와의 경제적 연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경제적 및 법적 유대관계를 끊기를 원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혼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등 법적 권리에 있어서 이혼과 혼인 무효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결혼 사실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 신청은 각 주의 법에 따라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각기 다르며, 보통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원한다는 식으로 거짓 말을 하여 사기 결혼을 하였다는 등, 결혼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경제적, 법적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별거보다 이혼이 옳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 별거나 혼인 무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혼과 비슷한 경제적 독립성을 얻을 수 있지만, 어차피 법적 별거나 혼인 무효 신청을 하려면 법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혼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주의 법에 따라서 배우자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여야 하거나 결혼 기간이 1년 이하여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도 승인될 수 있는 이혼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자산과 부채가 많지 않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 한해서 법원에 출두할 필요조차 없이 “약식 이혼(summary divorce)”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니, 아무쪼록 해당 주의 가정법에 대하여 잘 아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